

인본주의 세속화 물결에 휩쓸리는 이 시대를 반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행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파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반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1월 1일 (토) 제 150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세속화 심화로 교회출석 감소

바나리서치, 교회가지 않는 사람들의 5가지 경향 설문 결과 발표

1990년 이후, 미 성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율을 30%에서 43%로 증가할 정도로, 미국인들은 점점 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 바나리서치는 지난 20년 동안의 방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생각 그리고 행동들에 대한 5가지 유형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바나리는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과거에 비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다른 기대치들이 있다는 공통분모를 발견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경향을 지적해준다(Five Trends Among the Unchurched).

1. 세속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거의 미국 성인 인구의 2/5(38%)는 지금 포스트크리스천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수치에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자신의 주관이나 생각에 따른 진리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극단의 포스트크리스천들 10%도 포함되었다.

또한 28%의 미국인들은 중도 성향의 포스트크리스천들이 있어, 미국 사회가 점점 더 세속화의 범람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우리가 정의하는 "크리스천"의 의미가 아닌 세속적인 차원에서 믿음 생활과 실천을 하고 있는 성인들이 이제는 1/3 이상이나 됐다는 이야기다. 만약 교회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 제시가 없다면 이러한 경향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세대별로 보자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즉 젊은 층일수록 포스트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반절에 육박하는 밀레니엄들(48%)이 자신들을 포스트-크리스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X세대는 40%, 부머는 35% 그리고 엘

터스도 28%로, 세속주의는 어느 세대에만 한정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 더욱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2. 사람들은 교회의 목적, 이상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회공동체가 그들과 함께 만나서 사귀고 관계를 갖는 노력을

에 냉담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회에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방법은 바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 데려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인들을 설문한 결과, 1/5 이상이 친구를 통해 교회에 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이라는 점에서 역시 도전과 받고 있다. 20년 전에는 친구를 통해 교회에 오는 비율이 65%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47%로 줄어들고 있다. 결국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목적이나 이상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 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불신자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전통적인 전도 방식들은 20년 전에 비하면 저조한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 목회자의 가정방문(34%-27%), 교회로부터 전화(34%-24%)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 광고-TV, 라디오, 신문(20%-18%), 직접 메일(24%-16%) 모두가 현저하게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3. 교회에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주류사회의 특성이 아니다

주일이면,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바로 미국 사회의 전형적인 단면이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 교회에 가지 않는 성인 중 1/7은 거의 한 번도 주일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다. 지금은 거의 1/4이 교회에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1)교회가 점점 더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잊혀지고 있다 2)교회가 없는 성인들이 이제는 아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인들의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자신의 경향, 먼저 파악하라

WSJ, 창업지원비영리기관 '엔데버' CEO가 밝히는 4가지 기업가 유형들

요즘 기업계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활기가 넘친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서 망치는 것이 더 문제다. 회사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지만 그것을 회사 전체로 퍼뜨릴 수가 없다. 제품을 완성하지만 새 고객을 찾기가 어렵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지만 그걸 유지하는 방법을 모른다. 차고를 떠나자마자, 밀려드는 차들 때문에 발이 묶이는 셈이다.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거울을 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라. 나는 수년간 수많은 기업가와 작업해왔고 그들은 대부분 다음의 네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핵심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The Four New Breeds of Entrepreneurs:

To run a successful start-up, figure out if you're a diamond, a star, a transformer or a rocket ship).

장점 강화하고 약점엔 주의해야

다이아몬드(Diamonds)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의 삶에 혁신을 일으키길 원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전도사다. 성공할 경우 게임의 판도를 바꾼다. 하지만 실패하면 지지분하고 끝치 아파진다. 다이아몬드들은 똑똑하지만 자기 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크 저커버그와 테드 터너가 이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역시 궁극의 다이아몬드는 스티브 잡스다. 잡스는 경력 중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꿈에 맞게 현실을 바꿔버렸다. 하지만 그런 확신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세상의 관심을 독차지하려고만 했다. 다이아몬드가 직원들과 좋은 친구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다이아몬드는 배움을 위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의 비전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하다.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문제를 찾아낼 수도 없다.

자신의 성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팀을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명예와 보상을 나눠 가져라.

스타(Stars)

유형의 선도자이자 개성이 강한 스타들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본능적으로 안다. 스타가 성공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종종 활기 넘치는 1인국이 되기도 한다. (3면으로 계속)



뉴욕교협 제 40회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뉴욕호신정로교회에서 열렸다(7시 10분). 새 임원선거를 마치고 신규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오른쪽부터 새 임원으로 감사 김영철 목사, 평신도부회장 박영진 장로, 부회장 이종영 목사, 회장 이재덕 목사 그리고 직전회장 김승희 목사, 평신도부회장 이주의 장로, 총무 장경혜 목사, 부회계 전희수 목사, 서기 송일권 목사.



2면

리더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4면

크리스천 리더십
번역 및 요약: 최운용 목사



16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1)
노봉린 박사

11월 2일부터 서머타임 해제



시계 오전 2시에서 1시로 돌려야

11월 첫 주일인 2일 밤을 기해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오전 2시가 오전 1시가 된다. 토요일인 11월 1일 잠들기 전에 시계바늘을 한 시간 뒤로 당기면 된다.

A Line in the Sand 11.11.2014

www.aLineintheSandConference.com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

HONDA Center

1:00 PM - 9:00 PM

2695 E. Katella Ave., Anaheim, CA 92806



**대회본부 사정으로 다민족 기도대회 시작 시간이 10시에서 오후 1시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부흥만이 살길입니다.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비상하게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입니다. 미국사에 보면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교회들이 역대하 7:14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그 때마다 하나님은 부흥을 보내 주셔서 나라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한인크리스천들이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심장으로 마음을 찢으며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한인 인도 기도시간: 11월 11일 (화) 오후 6:30-8:30

주 최: A Line in the Sand (11/11/14 기도회 · 장소: 애나하임 Honda센터)
한인주최: 남가주교회협의회, OC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OC목사회, 남가주 각지역 교협 또는 목사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KCCC, 미주복음방송, 남가주 청년사역자연합회
한인주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JAMA

문의: 323-933-4055, 626-372-5151, 714-336-4378

후원: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일보, CGN TV, CTS, 미주복음방송, CBS 기독교 FM 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시론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야 할 것!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최근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이 걸려 신문과 방송을 통해 연일 두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에볼라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에서 시작되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으로 퍼져 2014년 10월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미국과 스페인, 시아프리카 5개국 등의 감염자 수는 9,216명, 사망자의 수는 3,349명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라이베리아 출신인 에릭 댄컨이 입국 후 고열로 인해 9일 만에 사망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의하면, 텍사스 건강장르병원의 여성 간호사가 두 번째 감염환자임을 발표하였으며, 뉴욕 시에 아프리카 기니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돌아온 한 의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열로 고통을 겪고 있다한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공포가 미전역을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에서는 서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승객은 에볼라 추가 검사시설이 있는 뉴욕 JFK, 워싱턴 덜레스, 뉴욕 리버티, 시카고 오헤어, 아틀란타 허츠 필드 잭슨 공항으로만 입국해야 된다고 발표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세는 독감증상과 비슷하며 전신 불쾌감, 오한을 동반한 고열, 부은 목, 심한 두통, 무력감, 관절통, 근육통, 가슴 통증으로, 기도에 나타나는 증상은 목의 통증을 수반한 인두염, 기침, 호흡곤란 등이며, 중추신경에 관련해서는 두통, 피로, 발작, 때론 혼수상태가 오며, 피부 관련증상으로는 발진, 점상출혈 등으로 쉽게 낫기 어려워 치사율이 55%에서 최대 90%까지 높다한다.

에볼라는 타액, 분비물, 혈액 등 체액과 직접 접촉할 경우에만 감염되는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직 완벽한 백신이 없다 한다. 뉴욕주 검찰은 에볼라 예방요령을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FDA의 승인을 받은 에볼라 백신은 없다"고 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가짜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판매와 감염자를 돕자는 허위모금 등이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국은퇴자연협회(AARP) 관계자는 "사기 범죄단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범죄에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에볼라 바이러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사망자 중 약 50여명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치료하던 의사들이었다는 것이다. 의사들 중 한명은 인터뷰에서 "나도 내 목숨이 걱정된다. 보호복을 입어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 말했는데 결국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 그와 함께 일하던 간호사 3명도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아까운지는 다 안다. 그들 모두 생명을 초월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다. 환자를 치료하려 갔다가 도리어 자신이 감염되어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자정해서 갈 이유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비행기 표를 주고 많은 수고비를 준다 해도 가지 않겠다고 거부할 텐데 조건 없이 가서 환자들을 돌본 것을 보면 아마 그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투철하거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들이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중 1948년 제네바 선언의 9가지 서약 중 두 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데 내 이익, 질명,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종족,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준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에게 침투해 균을 전염시켜 생명을 위협하고 죽게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상하게 영혼이 병들고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매사에 부정적인 자가 되고, 누구든지 상대방을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며, 믿음도, 주님과 교화를 섬기는 열정도 식어지게 만들며, 심지어 인간관계도 악화되게 만들고,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반면 그 사람만 접촉하면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살리는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 도전을 주는 자들도 있다. 척박한 삶의 현장, 척박한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 사람과 세상을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존재가 아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쓰임을 받는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한다.

리더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허핑턴포스트, 타고난 리더의 7가지 습관 보도

성공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행복에 대한 의견만큼이나 여러 가지 '비법'이 넘쳐난다. 아마존 사이트에만 27,000개의 리더십 관련 도서가 있으며, 매년 수천 건의 리더십 세미나가 개최되며, CEO들과 산업계 거목들의 리더십 사례를 분석하고 가르치는 웹사이트와 기사가 쏟아진다.

그러나 리더십은 기업의 CEO가 하나의 조직을 제어하는 것이 전부다 아니다. 리더십은 자신의 인간관계와 사회, 동료 그리고 직원들에게 일관된

비전을 제시하고 같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나로 묶는 능력이다. 훌륭한 리더는 일에 참여하는 개인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훌륭한 리더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 리더의 역할은 다양하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을 반복하면서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따라서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타고난 리더의 7가지 습관(7 Habits Of Natural Leaders)을 밝혀 주고 있다.

사람) 여러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1년 동안 자체적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헌신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랜트는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서 최고를 끌어낼 수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4월 호에 말했다. 그는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리더가 알아채는 것이다.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숨은 다이몬처럼 여기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내면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헌신하는 사람은 또한 좋은 롤 모델로서 조직의 성향까지 바꿀 수 있다고 그랜트는 설명한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1. 타고난 리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버드 경영대 교수 로사베스 모스 캔터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이느냐에 있다"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썼다.

'회복력', 즉 패배와 실패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좌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다. 이는 성공과 웰빙을 지향하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부분인데 리더에게 특히 필수요소다. 제대로 리



실패 두려워 않고 목표 쫓아, 헌신으로 타인 가능성 찾아내 정기적 휴식, 경청하며 공감 형성, 새로운 경험과 생각 추구

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실패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복력이 강해야 위험하고도 피할 수 없는 난관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실패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다.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교훈이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질대 모험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정말 큰 성공의 가능성은 사라지지만 말이다) 훌륭한 리더는 이 부분을 잘 인지하기에 오히려 실패를 제대로 이용한다. 허핑턴포스트 편집장 아리아나 허핑턴은 리더를 이렇게 설명했다. "리더는 실패를 다음 단계를 향한 징검다리"로 이용한다."

또한 아리아나 허핑턴은 훌륭한 리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좋아하는 리더의 전기를 읽어보라. 실패담이 가득할 것이다.

2. 타고난 리더는 자신의 목표를 쫓는다

"애플이 기본적으로 믿는 가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1997년 광고 캠페인 'Think Different'를 준비할 때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세상

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했다.

직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잡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열정과 강한 목표의식을 느낀다. 당시 진행한 광고 캠페인은 역사적인 인물 중 위와 같은 욕구와 열정을 보인 이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잡스의 말대로 "회사의 영혼을 건드리는" 작업이었다. 그는 "우리 회사 말고 이런 광고를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목적의식은 잡스와 같은 훌륭한 리더를 만든다. 의미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회사의 이익 수준을 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모든 직원이 각자의 가능성을 최대 발휘할 수 있으며 더 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

"목적의식이 있는 리더는 단지 운영을 하지 않으며 직원들의 영혼을 움직인다. 인간을 체결하기보다는 움직임을 이끌어낸다. 그들이 지향하는 브랜드는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국가 같이 애국심을 자극하는 상징이다."라고 인터넷 회사 브라이

트 하우스의 CEO이자 '목적에 대한 이야기: 더 뛰는 브랜드, 더 좋은 회사, 더 오래가는 유산 만들기'의 저자인 조이 라이먼은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런 리더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고자 한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우주에 족적을 남기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3. 타고난 리더는 헌신한다

조직심리학자 아담 그랜트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헌신하는 사람(다른 이를 돕는 것이 우선인 사람), 받는 사람(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연결해주는 사람(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동등한 이익을 추구하

4. 타고난 리더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한다

야후 CEO 마리아사 메이어, 버진 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미셸 오바마의 공통점은? 바로 성공한 리더들은 꼭 정기적으로 휴가를 간다는 점이다. 한때 22,000명의 직원을 관리한 시스코(Cisco)의 CTO(최고 기술 책임자)인 패드마斯里 워리어는 매일 명상의 시간을 갖고 매주 토요일마다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한주의 업무를 맑고 침착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훌륭한 리더는 매우 야심이 크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p>·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프)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la@chpress.net</p>	<p>·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10월 31일까지 입학하시면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세속화 심화로 교회출석 감소

(1면에서 계속)

문제는 심각하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인들이 최소한의 개인적 경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교회가 없는 성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교회 활동에 서로 다른 기대들이 있다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활동이나 참여에 따르는 기대다.

1990년 초반에는, 10명의 성인 중 7명이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오늘날 불과 57%의 성인들만이 주일예배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주일예배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 구성원 즉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점 역시 흔들리고 있다. 1993년과 2011년에 바나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인들에게 물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

회에서 특정 한 교회나 아니면 서로 다른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 85%가 한 교회만을 다니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신도 없고 어디를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5. 교회의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회의가 팽배하다

아직까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는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독교가 미국 사회에 기여한 장단점을 물었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어떤 단일 요소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반면에 37%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확하게 꼬집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밝힌 기독교의 기여는 다른 아닌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봉사였다(22%). 그리고 도덕과 가치의 신장(10%),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을 믿게함(8%)이 그리스도의 공헌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하는 것(18%), 동성결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15%), 성직자들의 성 추문(13%) 그리고 정치에 대한 참여(10%)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응답하고 있다.

자신의 경향, 먼저 파악하라

(1면에서 계속)

리처드 브랜슨, 에스티 로더, 마사 슈튜어트, 제이슨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이클 선수 램스 암스트롱이 멋진 예다. 그는 램스 암스트롱 재단을 설립하고 노란 팔찌를 유행시키면서 이 재단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영리기관 중 하나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그의 악물 의혹이 불거지자 재단 기부금이 급감했다. 스타로 인해 성공하고 스타로 인해 망한 경우다.

스타는 위와 같은 비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조직이 자기 개성에 따라 잘 운영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운영과 고객 서비스처럼 '지루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아첨도 주의하라. 당신에게 찬사를 보내는 이들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을 보완해주는 이들을 찾아라.

변혁가(Transformers)

변혁가들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쉴츠나 다비디삼의 안타 로믹이 변혁가들이다. 이들은 보통 역사가 깊은 산업에서 활동하면서 그 산업을 현대화한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과연 지속가능할까?

1984년, 히지하이킹을 하던 싱글맘 록산느 쾰비는 양봉업을 하는 버트 사비츠의 차를 얻어 타게 된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쾰비는 남편 밑으로 립밤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버츠비는 곧 한 해 300만 달러를 벌게 됐고, 이후 클로록스에 9억 2,500만 달러에 인수됐다.

쾰비와 사비츠가 지루한 산업에 혁신을 일으켰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실패로 끝났다. 쾰비는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버츠비 팬들은 '지루전화

적'인 버츠비가 대기업에게 인수된 것에 불만을 가졌다. 변혁가들은 앞서나가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혁신이 빛이 바래는 경우가 많다.

변혁가들은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신의 전략을 당신의 사명만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의 이상을 실천할 강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수지도 신경 써라. 사회적 목표에 집중하는 변혁가들은 성가신 데이터를 무시할 때가 많다.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로켓선(Rocket Ships)

로켓선은 무언가를 더 싸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영리한 기술자들이다. 이들은 분석을 활용해 성공하지만 창의성이 모자라 휘청거리곤 한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전형적인 로켓선이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월스트리트를 떠나 인터넷 업계로 진출했다. 말지 결정할 때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regret minimization

framework)'라는 자신만의 결정 기준을 만들었다. 베조스는 아마존에서 데이터와 효율성을 찬양했고 각 부서는 매우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회의를 연다.

빌 게이츠, 마이클 델, 마이클 블룸버그도 로켓선이다. 로켓선들은 머리가 좋지만 자신이 좁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한다.

로켓선은 때때로 수치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질적 피드백은 입증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데이터가 놓칠 수도 있는 통찰력을 드러낸다. 감정은 수량화할 수 없지만 중요한 요소다. 자신의 머리 밖으로 나오는 일이 불편하다면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

이 4가지 유형에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기업가가 자기 유형을 알게 되면 변화하기 시작한다. 교훈은 분명하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웅을 하나 골라 모방하지 마라. 자신의 경향을 파악하고, 장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주의하라. 성공으로 가는 첫 단계는 자신을 아는 일이다.

소망 칼럼

성도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과 베품과 감사라고 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으면 힘이 없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고독한 고난 속에 홀로 남아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시면 그가 실재하여 좌절하거나 불행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낙심 중일 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신앙의 동지들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가 그릿 시냇가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까마귀가 먹게 되었고 그에게 가져다주도록 하셨다.

마28:20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주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돌보아주신다. 어린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그저 기쁘기만 한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괴로우나 외로우나 가난하나 고생하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비록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시달려도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이다.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일상의 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모신 사람은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고 항상 만족하고 행복이 넘쳐난다.

한 번은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국내를 순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떤 동리에 이르니 물레방아간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루이스 황제는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가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루이스 황제는 노인에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청하였다. 노인은 자기에게 노래를 청하는 사람이 영국의 황제 루이스 인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다. "세상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사람 부러워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황제는 노인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너무 기뻐서 "2절은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황제의 질문은 노인이 "2절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황제는 2절은 이렇게 불러보라고 부탁하였다. "세상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노인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황제는 너무 너무 기뻐하면서 궁정으로 돌아온 후 그 착하고 순수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하고, 신앙이 독실하며, 가난한 형편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착한 백성이 자기가 다니는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렸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순수함, 겸손함, 검소함, 근면함, 친절함, 명랑함, 감사함, 기뻐함, 찬송함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고 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기쁘지 않은 일, 기쁘지 않은 찬송, 기쁘지 않은 예배, 기쁘지 않은 봉사를 하면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항상 기쁨 충만, 감사 찬미함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유 겸손하게 기도하고 봉사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과 전도와 봉사에 힘쓰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리더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2면에서 계속)

그렇지만 일중독, 그에 따른 극도의 피로가 해롭다는 사실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창의성과 예리함을 위해 휴식을 하며 재충전한다. 피로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전화에 늘 달려들어 있다가는 리더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 요가를 하든, 토요일마다 전자기기를 멀리 하든, 매년 휴가를 정기적으로 가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예리한 정신력이 생기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 휴가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브랜슨은 "휴가를 간다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차단된다는 것인데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기대하지 못했던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경제지 애틀러프러너에 말했다. "개

인 사업가이든 기업인이든 사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아이디어 없이 휴가에서 돌아온다면 무언가 바꿀 때가 됐다는 소리다."

5. 타고난 리더는 경청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성공의 간단한 비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경청한다고 한다. 클린턴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의 카리스마가 바로 사람을 중시여기는 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최근 정치인 중 소통의 귀재라고 불리는 것일지도.

클린턴은 정치인생 초기부터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눈을 주시하며 경청하는 것으로 소문났었다. 즉 타고난 리더의 기본 요소가 몸에 배어 있었는데, 남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아무 리 바빠도 그들을 위해 시간을 냈다.

클린턴은 자서전 '나의 삶(My Life)'에 "난 평생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며 "사람들을 알고, 이해하고, 느끼고자 했다"고 적었다.

클린턴의 이런 고도의 주의력은 '주의력 결핍' 때문에 소통과 관계가 파괴된 우리의 현재 상황과 크게 대조된다. 다른 사람과 그의 말에 집중한다는 것이 말은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 더군다나 첨단 기술은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만연한지 대화 중에도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정신의 3분의 1만 써서 집중한다는 연구도 있다. 훌륭한 리더는 상대방에게 이보다 훨씬 높은 관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6. 타고난 리더는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추구한다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사업이나 조직을 한발 앞

서가게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점점 중요한 리더십 요소로 간주된다. 창의적인 리더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리더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의 기본 성향 중 하나인데, 지식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체험에 대한 욕망을 뜻한다. 또 창의적 성과와도 가장 밀접한 성향이다. 조직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성향이 리더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신호 중 하나라고 하는데 외향성이나 신경을 많이 쓰는 성향보다도 리더십에 더 적절하다고 한다.

리더가 변화와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려면 유연하고 유동적인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사물에 다가서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실리컨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버닝맨 축제(Burning Man Festival)를 매우 즐긴다.

(4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불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나이가 2천년이 되어감
교회는 처음 교회와 많이 달라졌습
니다. 긴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가 초대 교회로부터 얼마나 달
라졌는지 또한 어떻게 달라졌는지
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첫째 성령님의 역
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
큼 크고 강력했습니다. 교회와 선
교를 성령께서 주도하셨고 사람
들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건물에 집착하기는커
녕 교회가 건물을 소유한다는 개념
조차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
에서 모였고 집이 신앙생활과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사도
들은 구제 등 다른 사역들을 내려
놓고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했습
니다. 넷째,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
으신 예수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임을 선언하

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
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했습
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교회는 첫째, 체
계화, 조직화, 제도화의 길을 걸
으며 성령님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람
들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둘째, 4세기 이후
교회는 점차 건물 혹은 크고 화려
한 건물 소유에 집착하여 교회당
을 짓는데 시간과 탐과 재정을 쏟
아 부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은 형식화되고 약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여러 나라 교회에
서 답습되고 있습니다. 셋째, 프로
그램과 문화, 구제 등 행사 중심으
로 교회 사역이 진행되면서 ‘기도
와 말씀’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

었습니다. 넷째, 복음의 무게 중심
이 부활에서 십자가로 옮겨지면서
사도행전의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 중심화 되고, 건물
에 갇혀서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운
영되는 교회, 신앙도 선교 동력도
약화된 오늘날의 교회는 모든 민족
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
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여겨집니다. 왜
냐하면 한편으로 오늘날 교회는 인
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점
점 더 물들어가며 깊은 안일에 빠
져있고, 다른 한편으로 폭력, 테러,
살인을 불사하며 강력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이슬람 세력은 영역을 오
히려 점점 더 넓혀가고 있기 때문

입니다.
역사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소중한 영혼들을 찾아 구
원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
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야 합
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
로 고백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
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권
능으로 전파합니다. ‘집에 있는 교
회’를 통해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
고, 그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개척
합니다. 주 예수께서 영광의 왕으
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푸 / 른 / 초 / 장

박은일 목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룻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인
류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나안 땅의 기근, 엘리멜렉의
가정의 불행, 이방인과의 결혼, 죽
음, 가난, 룻의 헌신적인 신앙과 어
머니에게 효도하는 이야기들은 우
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
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돌아보아야 한다. 내 신앙이 침체
되거나 믿음이 뒤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상태를 점
검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
상과 타협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
님과의 타협할 수 없다. 시험하실
때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타협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어떠한 값을 지불할지라도
가면 안되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
라’고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

이 가면 안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1절에 말씀처럼 “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고 그랬다. 나오
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마음이 이미 결정하였다.
본문은 신앙의 내려가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가서”(1절)라고 하고 있다. 베들
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 하나님에
게서 이방으로 갔다. “들어가서”(2
절) 모압 지방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들어갔
다. “거기 유하더니”(2절) 유한다는
것은 계속 머무는 것이다. 사탄은
거기 가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유

다.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라
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일어나
야 한다. 주님 앞에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자를 찾으
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상하고
망하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를 찾으신다. 주님께 돌아가기 위
해 일어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신
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어떻게 일
어나게 되었는가? 나오미가 하나
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다.
6절에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나오미의 전환점 (룻1:6-7)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인생에 전
혀 다른 두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
을 알려준다.

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것이다. 아마 이 때에 모압은 훨씬
잘사는 선진국이었던 것 같다. 엘
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
간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
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도 만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협상하지 말라’ 하시면 협
상하지 말아야 한다.

하게 한다.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
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공허, 절망만 남았다.

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
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
고 그랬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
씀을 들어야 한다. 나오미는 주님
의 대한 사랑을 들었다. 양식을 주
셨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그리 중요
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여
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고(기
역) 계신다는 것이 그에게는 더 감
격이었던 것이다.

세상에 무궁무진한 행복이 있다
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보
다는 나의 능력과 명철을 의지하
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용
하여 마음대로 살며 세상과 타협하
며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하
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
아오게 하신다.

1. 나오미의 첫 번째 전환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흥년이나 풍년이 들 수 있다. 이 세
상에서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
앙의 보증으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
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베들레헴에 흥년이 있었기에 내
려가야 했고 또 다른 큰 이유는, 두
아들들이었다. 부모로서 몹이 약한
아들들을 위해서, 이곳에 있으면
안된다...라고 했을 것이다. 자세한
결과를 그 다음에 보여준다. 인생
을 펼치기도 전에 두 아들을 잃었
다. 그들의 생명을 모압에 갔다고
해서 보증을 주지 못했다. 그들의
결정은 철저히 인간적인 것이었으
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첫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지시
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들에게 모압에 가라고 지시를 주시
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가? 기도하여야 알 수 있을 텐데 그
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베들레
헴에서 짐을 싸고, 떠나겠다는 것
은 엘리멜렉의 욕심이었다. 둘째로,
엘리멜렉은 창세기 때부터 내려온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곳이
며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

2. 나오미에게 두 번째 전환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
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
려움을 주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라는 하
나님의 부르심인 것이다. 만약 하
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짐을 치시지
않았다면, 나오미와 그의 자식들은
모압 땅에서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살면서 죄 짓고 살다가 망했을 것
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
을 치셨기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

“나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먼
이방 나라에 온 죄인도 하나님은
권고하시느니라. 망가지고 허물투
성인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느니라”
이것을 들었기에 돌아가게 되었다
는 것이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쓰디쓴
나오미의 인생에 가장 큰 빛으로

“나는 누구의 손에 의하여 어디
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전 영
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
양하기를 기도한다. 만나는 어려움
과 좌절 또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
획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
리고 견고한 믿음과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3면에서 계속)

버닝맨은 네바다 사막에서 매년
열리는 예술/만화 축제로서 새롭
고 색다른 생각과 체험을 할 수 있
는 곳이다.
그렇다고 꼭 사막에 가야 훌륭한
리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전략

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경험치
를 최대한 많이 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7. 타고난 리더는 다른 이와 공감 한다

일터에서 공감이란 말은 흔히 떠
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공
감대를 잘 형성하는, 즉 직원들을
정말로 걱정하는 리더일수록 사람
들을 감동시키고 자기편으로 이끄

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
러한 공감대를 잘 이루는 리더는 소
통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이의 견해
를 이해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높다.
그리고 필요할 땐 그렇게 관계를 형
성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캠플린 대학의 평생 교육 원장인
제이슨 보어스는 공감 능력이 사업
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고 주장한다. 그는 “성공적인 사람
은 홀로 움직이지 않는다. 목표를 향
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생성

해야 한다”라고 포브스에 말했다.
또한 “진정한 공감대는 모든 결정에
있어 감정적, 이성적 요소 두 가지
를 완전히 이해할 때 이루어진다”라
고 말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날짜 2014년 10월 23일(목) ~ 11월 6일(목)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장순직 목사

드림교회 담임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한반도 회복 기도 운동연합 대표회장
CTS 운영이사
총회(합동) 부흥사회 증경회장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선거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하) -투표해야 하는 TOP 3가지 이유

1. 생명의 존엄성을 넘어 살인 및 인구통제에 들어선 미국정부 정책

캘리포니아 목회자들과 교회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낙태를 지지하던지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통해 오바마케어다 다시 법을 고쳐 DMHC(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라는 보험이름으로 교회와 목회자 등 모든 기독교 단체들까지 낙태시술에 들어가는 돈을 교회 헌금과 크리스천들의 세금으로 후원하도록 하겠다는 편지를

바마 정부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무려 540.6백만 달러를 미국의 최대 낙태시술소인 Planned Parenthood에 후원금으로 줬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UN을 통해 중국의 One-child(1명만 낳기) 정책을 강화하라며 낙태금지 후원금을 미국인들의 세금을 자그마치 227백만 달러나 주었다고 합니다. 인구통제: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인구통제가 미국에서까지 "낙태" "여성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들의 세금으로 "살인"을

band & wife"라고 하지 않고 "spouse & spouse"로 부르도록 하는 법안 △AB1444: 학부모들의 권리 침해, 모든 자녀들에게 의무적으로 유치원 교육(통과 못함, 기독교인들이 법안이 되기 전 저지하는 것에 성공)

"인구 통제" 친동성애: 친동성애 법안들이 이렇게 통과 되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게 됩니다. 동성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HIV 감염의 기세가 훨씬 높음으로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30-40% 짧아지기 때문임

은 곧 이 대세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Foot Bath 장소제공: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번에 이슬람들의 기도생활을 위해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발을 씻는 전통을 지킬 수 있는 Foot Bath 장소와 기도 장소를 공공장소에 마련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발을 씻는" 행위는 한마디로 거룩한 땅(기도의 장소)을 밟기 전에 행하는 매우 "이슬람적 거룩한" 행위로서 캘리포니아 정부가 공립학교뿐 아니라 얼마나 이슬람들에게 호위를 베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 정책적 인구통제 낙태금지, 친 이슬람법안 확대 알라신만 유일 신 교육, 풋베스 장소제공 등 친이슬람정책

교회들마다 전달됐습니다.

DMHC에서 의무화 하는 것은 건 강하게 자라는 태아도, 부모의 선택에 의해 또는 성(gender)에 의해 태아 분해, 또는 절단 낙태수술까지 의무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지금까지 영향 받고 있는 단체/교회들: 리포트에 의하면 현재 Loyola Marymount University and Santa Clara University 가 낙태후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낙태후원을 의무화" 하는 보험을 들라는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거의 다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인데,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Calvary Chapel Chino Hills in Chino 교회도 있으며 Foothill Christian School in Glendora 등 10여개가 됩니다. 지금도 더 많은 교회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보험에 관련 편지를 받고 있으니 각 교회들이 보험회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TVNEXT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CMM(Christian Mutual-Med Share)이라는 정부에서도 인정된 그러나 낙태후원을 안 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현재, 반기독교/친동성애/친이슬람 운동권인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가 이 일을 정부와 추진 중이며, 기독교 팀에서는 Alliance Defending Freedom and Life Legal Defense Foundation 쪽에서 항의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2014년 초 CSN뉴스에 의하면 오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9.11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태아들이 30초가 되기 전에 1명씩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2. 친동성애 법안들 확대

아래의 법안들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인해 다 통과된 법안들이며, 어떤 법안들은 현재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법정 소송에 걸려있습니다.

△SB48: 친동성애 교육을 K-12 학생들 교과서에 왜곡되게 집어넣는 법안

△AB1266: K-12 남녀학생 혼용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사용을 허락하는 법안. 기독교인들이 소송 중이나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인 데보라 브라운과 자유주의 정치인들의 방해가 심함.

△SB1172: 정상인이 되고자하는 동성애자들이 받는 크리스천 카운슬링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안.

△AB154: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고 산파라고만 해도 태아를 낙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

△Prop.8: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결혼의 정의를 "남녀"로 결정해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동성애자 판사와 2명의 자유분방한 판사들끼리 Prop. 8을 무효화시킨.

△2명 이상의 부모를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법안 통과(2013, 10월)

△SB1306: 부부를 더 이상 "hus-

band & wife"라고 하지 않고 "spouse & spouse"로 부르도록 하는 법안 △AB1444: 학부모들의 권리 침해, 모든 자녀들에게 의무적으로 유치원 교육(통과 못함, 기독교인들이 법안이 되기 전 저지하는 것에 성공)

FACT: 캘리포니아에서 친동성애 법안들은 현재 시민들의 투표로 통과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두 민주당의 자유주의 동성애 클럽의 상원/하원의원(Senators, House Rep)들이 만들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통과된 것들입니다.

FACT: 현재 미국에서 10월까지 총 32개의 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32개 주중에서 정작 시민들의 투표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곳은 3주밖에 안됩니다. 메인, 메릴랜드, 워싱턴 뿐이고, 그 외는 모두 상/하의원들, 주지사, 부주지사, 또는 사법원들끼리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통과시켰습니다.

3. 친이슬람 정책

동성결혼합법화가 된지 10년째 되는 매사추세츠 공립학교에서는 이제 그들의 "교과서"에 정식으로 이슬람을 옹호, 문화, 좋은 종교로 가르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더 학부모를 놀라게 한 것은 교과서에 알라(Allah)만이 오직 유일신(only god)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캘리포니아, 뉴욕도 마찬가지며,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주들

인구통제: 이슬람법인 샤리아 법에 의하면 알라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무관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샤리아법"을 미국의 헌법으로 가져오려고 수없이 노력했으나 다행히 실패했으며, 현재 이미 7개주는 법적으로 샤리아 이슬람법을 절대 주정부로 들어오게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선거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친동성애, 낙태금지정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친이슬람인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2년 동안 친이슬람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더 밀어부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주(State)에서 친이슬람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의원들(Senators/HR)과 리더들이 필요함입니다. 남은 2년 동안 미국이 더 깊은 친이슬람이 되느냐 아니냐는 이번 어떤 "미국의 리더"들이 뽑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치인"이 아닌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주신 투표 권리를 포기할 때, 약은 더 성행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조용할 때, "기도한다"는 이유로 아무 "믿음의 실천"을 하지 않을 때, 사탄은 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나갑니다.

선거 자료는 TVNEXT.org에 한글로 정리해볼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이슬람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이슬람 내에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서로 다른지요?
-나성에서 권영화 집사

A: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순종 혹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알라의 뜻에 복종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인종 피부색, 공동체, 국가에 속하더라도 이슬람교인(무슬림)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슬림 세계에도 두개의 계파가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무슬림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시아파는 20%정도가 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같은 무슬림이지만 그 차이는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차이만큼 큼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언자였던 마호메트가 죽을 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견해 차이에서 차별이 시작됩니다. 수니파들은 마호메트와 혈연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이슬람의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지만 시아파는 마호메트가 남긴 유일한 남자 혈육인 알리(제4대 후계자)의 혈통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강근 선교사가 쓴 '중동이야기'란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

무슬림의 20%인 시아파는 혈통계승 주장, 80% 수니파와 같음

습니다. 마호메트가 죽은 후 1대 후계자(칼리프)로 아부바크르가 선출되어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제국의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2대 후계자(칼리프)로 된 오마르는 그의 재위 10년 동안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등 대 제국을 이룩합니다. 3대 후계자로 선출된 오스만은 마호메트가 죽은 후 20년이 넘도록 정립되지 않은 코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4대 후계자(칼리프)로 마호메트의 사촌동생 알리가 선출되어 마호메트 사후 처음으로 가족 중에서 후계자가 나왔습니다. 마호메트 사망 직 후에 알리가 너무 어려 앞 3명의 후계자가 나온 후에야 4대째에 적계가족이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마호메트 사후 4대 칼리프까지 수니파와 시아파는 분열되지 않았

습니다. 시리아의 총독인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는 3대 후계자의 총신이었었는데 그의 암살에 대한 불만을 품고 4대 후계자인 알리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5대 후계자(칼리프)로 오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6대 후계자로 앉히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부 반대세력들은 4대 후계자 알리의 둘째아들 후세인을 그들의 지도자로 내세웠지만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당한 후세인은 이슬람제국의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죽은 순교자로 추앙됩니다. 그의 순교일이 현재 시아파 최대의 기념일입니다.

알리와 그의 아들 후세인을 따르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시아파의 시작입니다. 초기 시아파는 주류로부터 철저히 탄압을 당했고 탄압이 계속될수록 시아파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더욱 격렬히 저항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류 수니파와 반대파 시아파 간의 갈등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시아파의 원인이 저항에서 시작된 만큼 시아파는 대체로 수니파보다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입니다.

신암교회 담임목사 청빙

브라질 상파울로 신암교회(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본 교회는 설립 25년 된 교회로 자체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체육관과 교육시설(각 교실, 도서실 등)이 완비된 교회입니다.

- 자 격:** (1) 장로교 신학교(합동측) 본 노회 가입에 적합한신 분
(2) 연령 40대에서 50대
- 제출서류:** (1) 목사 안수 증명서
(2) 이력서(사진은 여권사진 크기)
(3) 가족소개서 및 가족사진
(4) 담임목사 목회방침 계획서 및 설교 CD
- 제출방법:** (1) 직접 방문
(2) 우편송부시에는 반드시 등기로
(3) E-mail: shinamchoungbing@hotmail.com / shinamchoungbing@gmail.com
Contato: 00551194121-0855(강용학 장로)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보낼시 두 이메일 주소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TEL. 2693-0314)
(R. Rodovalho da Ronseca, 194-PARI, São Paulo SP Brasil CEP 03028-030)
- 제출마감:** 2014년 11월 30일 까지(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청빙위원장 강용학 장로(011-94121-085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_____	영 어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 달 주 소	_____		
전화/Fax	() ()	_____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_____	
배 달 주 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라메트(LAMET)



라메트족은 라오스 북부지방의 원주민들이다. 이들은 안남산맥의 서쪽에 거주하는 라오 통(Lao Thung, 산허리의 라오스인)족과 관련돼있다. 라오통족은 라오스 전체 인구의 1/4쯤 되나 라메트족은 약 15,000명쯤 된다. 이들은 라오스 북서지방 외딴 산악지

대에 마을을 형성해 생활한다.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돈벌이를 하러 저지대로 내려오기도 한다. 유감스럽게도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들 라메트족을 열등한 종족이라고 여기며, 때로는 "카"("kha", 노예)로 여긴다. 일부 라메트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위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역적 미신을 사용한다. 라메트족은 몬-크메르 언어군에 속하는 라메트어를 사용하며, 이 라메트어는 팔라웅(Palaung)어와 와(Wa)어과 관련을 갖는다. 남

자 성인들은 타이 유안(Tai Yuan)어도 사용한다.

삶의 모습 라메트족 마을이 독립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이기는 하나, 완전히 고립되고 격리된 사회는 아니다.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적용되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관습은 거의 없다. 각 가정들은 대략 6-7명으로 구성된다. 가정에서 각 가족들의 역할은 명확히 정의돼 있어 대표 남자어른은 마을 회의에 참석하며 가족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가족은 나무나 대나무 더미로 지어지며 부엌이 집안에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 중심에 남성들의 "공공가옥(common house)"이나 모임 장소가 있다. 결혼 후, 신혼부부는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살며 신랑이 신부집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상을 모두 마지면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구성하거나 신랑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마을에 빈부간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빈부차이는 마을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마을의 수장이나 "포반(pho ban)"은 마을과 라오스 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수장들은 그들이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라메트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렘(lem)"이나 부자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몰소, 종, 청동 북을 가져야 하고 기존의 렘(le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마을의 렘은 분쟁을 중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라메트족은 화전법 농업을 하며 주 농작물은 쌀이다. 사냥에도 종사한다. 라오족 및 타이족과 연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마을에 빈부간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빈부차이는 마을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마을의 수장이나 "포반(pho ban)"은 마을과 라오스 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수장들은 그들이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라메트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렘(lem)"이나 부자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몰소, 종, 청동 북을 가져야 하고 기존의 렘(le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마을의 렘은 분쟁을 중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을 영혼들에게 제사드리는 모든 일을 책임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메트족 거주지가 거친 지형을 지닌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라메트족과 교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지역은 또한 내전과 국제전의 전쟁터가 돼 라메트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 이들은 진리와 내적 평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라메트족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들의 모국어로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라메트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동성애 반대 목사 설교문 제출" 요구

동성애자인 에니스 파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시장이 지역 목사들에게 동성애와 자신을 언급한 내용의 설교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성애자로 첫 미국 대도시 시장에 선출된 파커 시장은 지난 1월 여성 동거인과 결혼했다.



22일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 등에 따르면 휴스턴시는 최근 시 검찰청을 통해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스티브 리글 목사 등 5명에게 파커 시장과 동성애, 성적체성, 동성애차별금지조례를 비판한 설교와 강연, 발표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다. 휴스턴 교계에서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한 동성애차별금지조례 시행을 막으려고 시를 상대로 조례 무효 소송을 내자 시가 압박 카드로 설교문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교계는 물론 정계와 법조계조차 시의 조치에 발끈했다. 그렉 에보트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문서 제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마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목사의 설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며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파커 시장에게 설교문과 성경 보내기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미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SBC)는 성명서에서 "문서 제출 명령이 잘못됐음을 자인하고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미 전역의 목사에게 트위터에 설교 노트와 함께 휴스턴 목사 5명을 지지한다는 뜻을 담은 해시태그 #4Houston5를 달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기독교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은 "시는 동성애차별금지조례 시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목사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파커 시장과 시 검찰총장은 제출

자료에서 설교문을 빼겠다고 했지만 동성애와 관련한 강연과 발표문의 전문을 여전히 요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휴스턴시가 목사 활동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교계가 동성애차별금지조례 시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스턴시 교계는 지난 6월 동성애차별금지조례 시행 폐기 주민투표 청원을 위해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서명 대부분이 효력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청원을 폐기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예배 도중 목사 등 31명 피살

나이지리아에서 주일에 배를 드리던 기독교인과 목사 등 31명이 살해되는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기독교 박해 소식을 다루는 전문 매체인 모닝스타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지난 19일 타라바주의 남부 마을 2곳을 급습해 교회 2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기독교인 29명을 살해했다. 순교교회의 누후 우세니 목사는 주일예배를 인도하다가 무참히 살해당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목사 1명은 자신의 농장을 둘러보다 피살됐다. 타라바주 남부는 기독교인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다.

모닝스타뉴스는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테러를 자행한 무장대원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플라니족 유목민일 것이라고 전했다. 플라니족이 오랜 기간 기독교인 농장주와 영토 분쟁을 해왔다는 점도 이들이 테러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모닝스타뉴스는 분석했다. 최근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잘 알려진 보코하람이 동남부 지역인 타라바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플라니족을 무장대원으로 적극 가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렘 아해마 나이지리아기독교개혁교회 대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타라바주에서만 올 들어 7번째 기독교 마을을 공격했다"며 "이들은 이 나라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마음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 그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학살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제인권법률단체인 주빌리캠페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1631명이 보코하람 등 이슬람 테러단체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기독교인 테러 희생자 1783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와 휴전에 합의한 보코하람은 지난 4월 납치한 기독교인 여학생 200여명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납치 행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과 26일에는 보코하람 대원으로 보이는 무장괴한이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소년 30명과 소녀 25명을 각각 납치했다.

"목요일은 성경 갖고 학교 가는 날"

미국의 한 가정사역단체가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기독교 학생들에게 성경 지참을 독려하고 있다.



포커스온더패밀리는 지난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성경 가지고 학교 가기(Bring Your Bible To School)'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미 전역의 기독교 학생들에게 "학교에 성경을 가져가서 수업 시간 외에 성경을 읽고 다른 친구들과 기독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권면하고 있다. 또 "성경은 희망과 사랑, 인간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성경을 가져오는 것은 환영받아야 할 일이지 금지된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에 읽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공립학교에 배포했다.

미 교육부는 학생이 수업 이외의 시간에 종교 서적을 읽거나 기도하고 신앙을 얘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교에 성경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읽지 못하게 하는 등 학생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포커스온더패밀리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플로리다주 포트로데데일의 한 공립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자율독서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교사의 제지를 받았다.

'성경 가지고 학교 가기'의 또 다른 후원단체인 자유수호연맹은 "기독교 학생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무인의 투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친구들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해받는 중동기독교인 위해 2500만 달러 조성

미국 할리우드와 유명 TV 드라마 제작자 부부인 마크 버넷과 로마 다우니가 박해받는 중동 기독교인을 돕기 위해 2500만 달러의 기금 마련에 나섰다. 버넷과 다우니 부부는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의 제작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들 부부는 최근 기독교구호단체인 IGE와 공동으로 '크레이틀 오브 크리스천리티 펀드(Cradle of Christianity Fund)'라는 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금을 활용해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때문에 난민이 된 이라크와 시리아의 기독교인이 다가올 겨울 동안 추위에 버틸 수 있도록 중동 현지 교회들을 통해 피난처와 식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붕괴된 고대 교회 재건과 교육 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IS를 피해 맨몸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변변한 옷도, 잘 곳도 없이 겨울을 맞이하게 됐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부는 이달 초 제작사 고위 간부를 이라크에 보내 기독교 난민의 실상을 살펴보는 등 중동 기독교인 구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제작자이자 배우이기도 한 버넷과 다우니 부부는 지난해 TV 시리즈 '더 바이블'로 큰 인기를 얻은 뒤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하나님의 아들'로 미국에서만 6000만 달러를 벌었다. 이들은 영화사 MGM과 함께 고전 '벤허'를 리메이크하기로 하는 등 할리우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앞서 유엔도 최근 이라크 난민을 위해 22억 달러의 구호 자금을 모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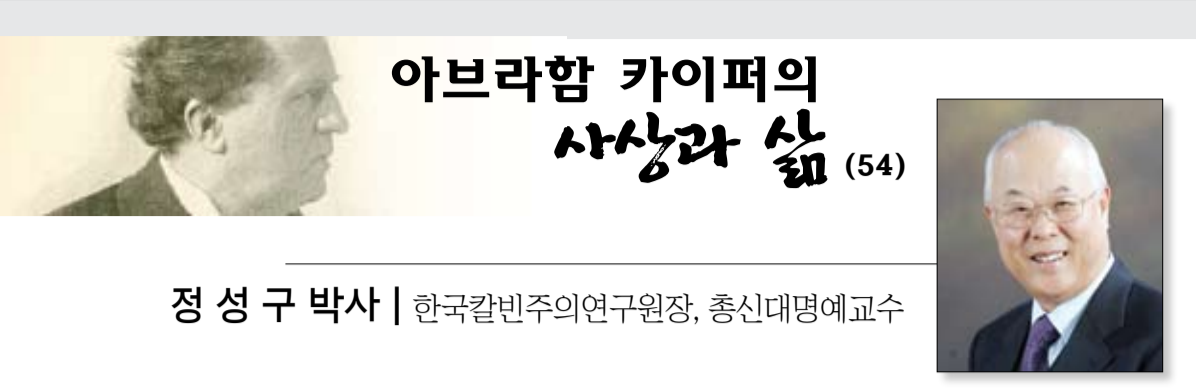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4)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성만찬과 공개적 신앙고백 및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 책임

바른 성례 집행 (하) 카이퍼의 견해를 좀 더 살펴보면 그는 유아세례 받은 자가 중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을 어려서 죽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게 하는 근거이며 유아의 중생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 부모들에게 자녀의 회개를 요구할 권리를 준다고 했다. 또 성령님께서는 믿음을 창출하시기 때문에 어려서 죽은 아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돌트신경(Canon of Dordt)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카이퍼가 이른바 추정된 중생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전도를 방해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 자신이 목회할 때는 무서울 정도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즉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들에게 교회와 부모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그들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향한 뜨거운 충성을 수반하는 개인적인 결단이다. 부모들은 이미 유아세례

를 받은 자녀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진실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카이퍼의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중생

유아세례에 대한 중생 개념은 칼빈과 달라. 성만찬은 '양육의 성례', 칼빈과 동일 수동적이거나 교회 일에 태만한 자는 남을 속이는 것으로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

다시 카이퍼는 부모들에게 주장하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관심한 버릇이 들게 하거나 수동적으로 성장하게 해서 안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그의 구세주를 찬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카이퍼의 이른바 추정된 중생의 개념은 칼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겼다. 그러나 카이퍼는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성령께서 즉시 역사 하셔서 중생한다고 믿었다. 카이퍼는 택한 백성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한 교회는 그들을 중생했다고 여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이퍼의 유아세례 이론은 회심의 필요성을 경감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카이퍼 자신은 유아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

성만찬과 공개적 신앙고백

카이퍼는 이해하기를, 세례는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라고 했다.

카이퍼는 벨직고백서(Belgic Confession) 30조를 받아들여면서 성만찬이란 '양육의 성

례'(Sacrament of Nourishment)라고 이해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양식을 우리 마음에 그리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 포도주를 그의 피처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적 양식으로 삼아 영적 생활의 버팀목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성만찬에 대한 논의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의견 일치가 어려웠다. 루터와 칼빈, 쾰링거리가 입장을 달랐다. 루터는 이른바 화체설(化體說)을 주장하고,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상을 하고 실제로 임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성찬식 테이블에서 포도주를 받은 모든 사람들

레 받은 후 입교 교인으로 성찬식에 처음 참여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의 신앙고백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도들은 악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구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문하기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언 즉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을 끌어버리라'(스10:11)고 한 선언을 기억하라고

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신자들의 몸이요 집단이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인 이상 십자가를 지고 겸손해지며 교회의 머리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최고의 장식과 영광은 겸손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카이퍼는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교회는 말씀의 사역과 성례를 성실히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지지하고 교회가 사용하는 은혜스런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들의 신앙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말씀 증거와 성례의 순결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에는 활동적인 성도를 위한 공간만 있다. 그러므로 수동적이거나 교회 일에 태만한 자는 남을 속이는 것을 하고 있으며 비록 교인의 명부에 들어 있을지라도 그는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카이퍼는 일생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 종으로 여겼으며 다른 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다.

우리가 볼 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에게 드리는 것뿐이다. 신앙은 내적인 자기 만족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의무와 책임과 소명을 간단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 책임

16세기의 요한 칼빈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특별한 극장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비추는 거울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 책임

16세기의 요한 칼빈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특별한 극장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비추는 거울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정사역 칼럼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가르치기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범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인생에서 용서를 주고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경우,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자녀를 말로나 신체적으로 학대하고서 사과하려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버림받

았다는 느낌으로 성장한다. 또 부모 간에도 서로 함부로 대하고 사과할 것 거부하면 마침내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가정에서부터 사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과 재결합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에서 익힌 대로의 대인관계를 사회에서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게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루는 책이나 모임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 어른들이 (특히 부부들) 사과하기 힘들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고 생각된다. 어린 시절부터 사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일 것이고, 어린 시절부터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익힌 대로 살아간다면 풍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하라. 이것은 도덕적 판단력이 분명하지 않은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문제를 감추거나 비난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과하는 첫 단계일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이해하도록 하라. 손님 오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자녀가 거실을 어지럽혀놓고 치우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나 전달법(Statement)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손님이 오실 텐데, 000가 거실을 마구 어질러 놓으니까 엄마/아빠는 치우려 니가 속상하고 힘드네"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자녀의 행동을 기술하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삶에는 언제나 규칙이 있음을 이해시키라. 삶에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혼돈으로 부터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규칙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런 결과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라. 성경 마태복을 7장 12절엔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쓰여 있음을 가르치도록 하자.

네 번째, 사과가 우애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하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

처를 주면 관계에 장벽이 생기게 마련인데 사과하지 않으면 이것은 제거되지 않는다. 사과의 말 또는 카드, 짧은 메모, 편지 등을 적어보도록 가르치라.

다섯째는 사과의 언어를 배우게 하라. 아이에게 진실한 নিু우침과 용서를 요청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부모가 모범을 보임으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안 그럴까", "날 용서해줄래" 등의 표현을 부모가 먼저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녀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초석을 놓는 것이 될 것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한명철 목사의 저서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 기도 기도

본서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을 모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작은 불씨를 모아 큰 불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36면 / 12,000원

숨겨진 신화



이 책은 <<인본원 책>> <<개봉원 책>> 요한계시록 주석을 요약해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게 작성한 것으로 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잘 활용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04면 / 12,000원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서

성경은 일일이 다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압축 파일과도 같다. 성경의 배경을 알면 그 압축 파일을 풀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되고 또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진희 지음 / 344면 / 13,000원

이스라엘 성지순례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 구약 역사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살펴보고 나사렛, 예인케렘, 베들레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과 공생애 사역지, 예루살렘, 기타 이스라엘 성지를 지도와 사진을 곁들였는데, 전문 사진작가 Lisa의 손길로 현장감을 더했다.

탁은숙 지음 / 328면 / 20,000원



인본원 책 / 개봉원 책

요한계시록 주석

한명철 지음 / 1-11장 / 672면 / 25,000원
12-22장 / 584면 / 23,000원



봉곡의 신호음이 들릴 때

고난의 현실을 피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헤쳐 나온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들의 실패와 재기를 통해 고난 극복의 지혜와 기술을 담았다.

한명철 지음 / 296면 / 13,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중로구 이화장길 6 쿨란출판사

맨 처음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는 한 개의 글자를 형성하는 방식은 언제나 초성-중성-종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글자들이 모이면 단어가 되고, 단어들 모이면 한 문장을 만들게 된다. 이런 방식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스물여섯 가지의 알파벳을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든다. 한자(漢字)는 각 글자마다 뜻이 들어있지만 이 역시 각 글자들을 모아 주어 동사 목적어의 문법구조를 가진 문장을 만들고 부사와 형용사 등의 꾸밈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아마도 모든 문자언어 체계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우주의 역사와 복음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구성을 보자. 한 권의 성경전서는 66권의 책으로 되어있다. 각 권은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지만 모두 다 문장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각 문장은 단어들로 그리고 각 단어는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하게 도식화 하면, 인류의 문자정보는

창조과학 칼럼 (210)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19)

하나님의 형상, 유전정보와 인공정보 체계

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은 없다. 수백만 혹은 수십만 년 전의 진화과정은 확실한 증거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신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안타까운 대답을 하기도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

과 가장 닮았다는 침팬지와도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부전자전(父傳子傳)이란 표현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대담이 실감나지 않는가?

한자를 통해 본 하나님의 형상

중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보면 노아홍수 후 100여년 만에 인류는 바벨탑을 쌓았다. 뿔뿔이 찢어진 노아의 자손들 중에 한 가족이 중국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중국에 도착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처럼 보인다. 적어도 그들은 노아에게서 들은 인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글자를 만들 때 그들은 그 글자 속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들을 넣었다. 그래서 창세기 1-11장까지 전 인류의 공통 역사가 들어있는 수많은 한자들이 발견되었다.

하나님 형상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 정보체계도 사람의 문자언어체계와 유사 바벨탑 이후 흠어진 노아 자손들이 만든 한자에 성경 증거 보여

전서 - 권 - 문장 - 단어 - 글자의 체계로 되어있다.

그런데 아주 놀랍고 신기하게도 생명체들의 정보체계도 사람의 문자언어 체계와 아주 유사하다. 두 체계는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생명체의 전체 정보인 게놈(genome)/(전서) - 염색체/(권) - 유전자/(문장) - 코돈(codon)/(단어) - 염기/(글자). 사람 세포의 핵 유전정보를 예를 들면, 전체 유전정보(게놈)는 23쌍의 염색체에 나뉘어 있고, 각 쌍에는 약 21,000가지의 유전자가 있으며, 10억 개의 코돈과 30억 개의 염기가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사람의 문자정보 체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생체정보 체계(DNA)와 놀랄 만큼 흡사한 것일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생체정보 체계에 대해 알기도 전에 그 체계와 아주 유사한 문자언어 체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고대로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류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왔으나 아직까지도 "Homo sapiens라는 동물" 이상의 만족할만한 대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인류의 기원 문제는 역사과학의 문제이므로 증인을 찾아야 한다. 물론 진화론적인 인류기원

나 창조론을 지지하는 증인은 존재하고 있고 그 분의 말씀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성경이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 6000여 년 전에, 남자는 땅의 티끌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창조하셨고,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추상적인 설명들만을 통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므로 자신을 '는 누가 기록한 족보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눅3:38). 모든 영어 성경은 "Adam, the son of God"으로 번역되어있다. 이 전율케 하는 기록은 첫 아담과 이 사람에게 속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와 방식을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창조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생체정보 체계를 알지도 못했지만 인류는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언어정보 체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 비슷하지도 않다. 사람

형상은 다윗이 알고 있었던(시 8:5) 그대로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인류의 조상을 의미하는 祖(조상 조)는 볼 시(示)변에 갈을 차(且, 혹은 버금 차)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 같았다는 것이다. 수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들어있는-신(神), 제사(祭祀), 예배(禮拜), 기도(祈禱)- 등등의 여러 한자들을 통해 확인된다.

영광을 뜻하는 영화(榮)를 분석해보면, 빛나는 두 사람(人)과 울타리가 있고 나무(木) 한 그루가 있다. 그 나무는 에덴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을 것이다.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들은 영화로운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은 '하나님의 형상'들은 힘써 노동하다가(勞, 힘쓰다), 결국은 죽어 무덤(塚)에 묻히고 땅의 티끌로 돌아가게 되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榮 祖

언어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수)

믿음의 전수

한국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오래고 미국에서도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잃어버리는 것 중의 하나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명예도 물질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다. 특별히 시편 78편 3-8절을 보면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

John Westerhoff 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는 질문을 던졌다. 직역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질 것인가?"가 되겠지만 크리스천부모인 우리를 향한 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사회의 가치와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사회화라고 부른다. 즉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고 그룹에 속하고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사회화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사회화 현상으로서 자녀들이 주변의 여러 믿음에 노출되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회화 되는가 하는 것이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 어린이의 믿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이다. 즉 어린 자녀가 믿음으로 양육되는데 있어서 그 어린이가 접하는 모든 환경이 믿음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 친척, 교회 등 가족적인 환경(family communities)이 있고 mass media, 사핑물 등을 포함한 market place, 이웃, 국가적 정책, 학교등 문화적 상황(cultural contexts)이 있다. 이 각각의 소조직들이 어린이가 접하는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어린이의 믿음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나 TV를 포함한 market place의 가치관은 반 기독교적인 영역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주로 백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Abercrombie라는 옷가게 앞에는 뿔뿔이 찢어진 채 근육을 자랑하는 청년이 서서 청소년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유혹이 우리 자녀들 앞에 넘실거리고 있다. 또한 진화론부터 시작하여 동성연애자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공립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기독교 신앙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신앙교육을 포함하여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를 둘러싼 각 조직의 가치관이 서로 일치할 때, 가장 최대의 교육효과가 이루어진다. 즉 가정에서의 가치관과 학교에서의 가치관, TV에서의 가치관이 다르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만큼 혼동을 겪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조직은 건강한 기독교 가정과 교회이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거듭 거듭 심어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거대한 세상의 문화가 던지는 많은 의혹과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메일: lpyun@apu.edu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 2015. 2.16~2.26 - 이스라엘+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 9 - 터키+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와같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동독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igh1115@gmail.com
-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동부교계 기사판



목회자 자녀 장학금 모집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가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NY, NJ, PA, CT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자녀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장학금 지급액은 1천달러 씩이며 총 20명. 구비서류는 초대교회 장학금 신청서(Application Form: 초대교회 웹사이트 http://www.njchodaenet/), 자기소개서(Essay), 재적증명서(Transcript, Tuition Bill or Certificate of Enrollment), 부모님 목회사역 소개서(사역주소, 기간 및 간단한 내용 설명), 시무 증명서류(주보, etc)이 필요하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6일(주)이며 chodaescholarships@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HeeKyung817@gmail.com 허희경 권사

장석진 목사 원로목사 추대식 및 학위수여식

뉴욕성결교회 장석진 목사의 은퇴예배 및 원로목사 추대식, 명예신학박사 학위수여식이 11월 2일(주) 오후 5시 뉴욕성결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린다.

▲문의: (718)948-0339

“생명의 성령의 법” 목회자 집중 세미나

“생명의 성령의 법” 목회자 집중 세미나가 11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뉴욕어린이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상관 목사(광주 사랑의빛교회 담임). 대상은 목회자, 사모, 전도사, 신학생.

▲문의: (718)899-8309

2014 바디워십 대회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양희철 목사) 2014 바디워십 대회가 11월 30일(주) 오후 6시 뉴욕총신교회(담임 김해택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 자격은 크리스천 그룹(개인출전 불가)이며 참가비는 당당 100달러. 참가방법은 청소년센터에 사전등록 해야 하며 선착순 12명. 음악은 7분 이내의 찬송가. 수상자들의 상금은 미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646)824-1857 최지호 목사

사역자 청빙

조지아주 컬럼비아신학교(담임 목사)가 사역자를 청빙한다. 사역부문은 교육담당 부목사(전도사)와 행정담당 부목사(전도사)로 목회학석사(M. Div) 혹은 기독교교육학 석사 학위수소지자로 한영 이력서 각 1부씩, 졸업(학력)증명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건 1매 포함), 최근 6개월 내 설교 2편(CD/DVD 또는 웹사이트주소)을 제출해야 한다. 마감은 12월 20일(토)까지. www.rockpc.org

▲문의: (706)580-9667, 333-6079



패밀리터치가 주최한 제6회 좋은 엄마들의 모임

제 6회 좋은 엄마들의 모임

제 6회 좋은 엄마들의 모임이 패밀리터치 뉴저지 본원(원장: 정정숙 박사)에서 열렸다. 30여명의 엄마들이 모여 자녀들의 성별 차이 이해와 그에 따른 자녀양육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엄마들의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자녀양육과 행복한 가

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주제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임이다. 뉴욕 모임은 11월 3일(월) 오전 10시에 패밀리터치에서 갖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718)961-0151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뉴욕교협 제40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새 회장에 이재덕 목사

제40회 정기총회, 부회장 이종명 목사, 박영진 장로

뉴욕교협 제40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이재덕 목사, 부회장에 이종명 목사가 선출됐다. 새 회장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는 “주어진 막중한 회장직을 맡아 화합을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과 더불어 신명나는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1부 예배에 이어 2부 회의로 진행됐다. 예에는 부회장 이재덕 목사의 인도로 기도 박영진 이사장, 성경봉독 이우의 평신도부회장, 말씀 한재홍 중경회장, 축도 김중훈 중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는 “사랑의 공동체”(고전 13:1-7) 제목의 말씀에서 “교협은 교회들의 모임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협이나 교회나 사랑이 없다면 존재가치가 없다”며, “사랑이 있는가 여하에 따라 삼십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타난다. 뉴욕교협이 하나님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회장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는 “40회기를 고난의 기간이 막을 내리고 성숙해가는 교협으로 시작됐다”며, “노보산에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40년 광야생활의 여정을 인도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던 것처럼, 교협간붙이전으로 리틀넥 시대가 개막되는 시점에서 돌아켜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 채택, 전회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이사회 보고로 이어졌다.

김영철 감사가 감사평가에서 지적한 교협건물을 통한 렌트 수입은 일반재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은 신안건에서 토의하기로 해 통과됐다. 재정은 총수입 386,247.61달러, 총지출 365,295.56달러, 잔액 20,952.05달러로 보고했다.

교협건물이전(주진위원장 김용길 신부)에 대한 보고에서 김대연 장로

는 매각과 매입하면서 은행(BBCN)을 45만 달러 얻었다(5년간 4.5%, 25년간 balloon 모기지)고 말하고 렌트 수입으로 모기지를 충당한다고 밝혔다. 렌트는 우리감리교회(담임 김동현 목사)와 월 3200달러(도네이션)로 가계약했다.

이어 청소년센터(대표 최창섭 목사) 보고는 공재구 사무총장이 했으며, 교회들의 후원금이 끊겨 일년에 1만5천 달러가 적자라고 밝혔다.

신임회원으로 주님의식탁교회(이종선 목사), 좋은목사교회(김신영 목사), 주님사랑선교회(박현숙 목사), 뉴욕열린교회(장현숙 목사), 뉴욕한마음교회(정양숙 목사)가 가입했다.

이어 열린 임원선거는 단독후보로 그대로 올라가는 의견도 있었으나 투표하지는 의견이 나왔으며 투표 형태를 놓고 설왕설래 하다가 무기명으로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회장후보 이재덕 목사는 찬성 81표, 반대 28표, 기권 2표로 73%의 지지를 받았으며, 부회장 후보 이종명 목사(뉴욕강성장로교회)는 찬성 103표, 반대 9표로 92%의 지지를 받아, 법이 정한 과반수를 훨씬 넘겨 선출됐다. 나머지 평신 부회장 박영진 장로(뉴욕성결교회), 감사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신구임원 교체에 앞서 제시된 헌법수정은 제11장 선거 및 자격 제 24조(선거) 제 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는 다점자로 한다. 제 2항 회장후보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다(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중경회장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후보를 등록케 한다)로 수정됐다.

수정안은 ‘중경회장단’의 등장으로 거부감을 주는 등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2/3(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신안건으로는 특별위원회로 중경회장을 중심으로 한 ‘신임회원위원회’를 구성기로 결의했다.

한편 제이미장사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황영진 목사, 이풍삼 목사, 박맹준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정성구 박사초청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목회와 설교” ..구속적 강해설교 바람직

뉴욕목사회, 정성구 박사초청 목회자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의 목사)가 주최한 정성구 박사 초청 목회자세미나가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 정성구 박사는 본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의 필자로 총신대를 비롯해 여러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교수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칼빈주의 연구위원장으로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날 “목회와 설교”라는 주제로 강의한 정성구 박사는 로마서 1장 14-17절을 읽고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농촌개척교회 한 것을 간증하며 첫 목회지에서 영혼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마을 전제를 목양지로 보고 목회하고

또 총신 강의 때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강의했다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박윤선 박사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박윤선 박사의 어시스트를 한 것이 두 번째 밀천이 됐다며,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박사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설교준비는 똑같다며 한 영혼은 천보다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목사는 섬세하게 남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복음이 무엇인가” 묻고 “유약결리온=기쁜소식=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케리그마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말고, “기쁜 소식이 나를 터치해서 내 속에서 감격과 감사와 확신과 엄청난 동력이 파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지 못하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기독교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인데 버빙크는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구속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본질로 돌아가려면 창조론을 찾아야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설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구속적 강해설교”가 가장 복음적이라며, 성경을 읽지 않는 설교를 보고 어떤 본문을 택하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려있어 개혁주의적이고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성구 박사는 인본주의와 가톨릭, 예규 메니칼 운동 등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세미나는 황동의 목사의 인사와 문석호 목사의 감사소개 및 시작기도 후 강제가 시작됐으며 이만호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정성구 박사는 24일 저녁부터 사흘간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열매를!”이라는 주제로 가을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마니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뉴욕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성경연구: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연구: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성경연구: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3(월-토)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FM(영어)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연구: 오전 10:00 수요일성경연구: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수요일인양모임: 오후 8:30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연구: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8:30 수요일인양모임: 오후 8:30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성경연구: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선한목사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에벤에셀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에사라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1부예배: 오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6:00 금요성경연구: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킨즈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킨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0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미아클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성경연구: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토): 저녁 9:00 7/14종교개혁 기념: 아침 7:40 주,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5: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스페니우 설교)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7회 정기연주회

11월 2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주재
입 목사, 지휘 전중재 교수)이 주최

하는 제7회 정기연주회가 11월 2일
(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

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해 살롬기도원에서 열린
기회경전에서 전중재 지휘자는 “이
번 연주회는 세 번의 스테이지로 나
눠 공연된다. 그리고 각 스테이지
사이에 헤세드 남성중창단, 에버그
린여성합창단, 그리고 피아니스트
벤자민 베크만이 찬조 출연해 연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재입 단장은 “이번 연주회는 목
회자 자녀들의 장학기금마련을 위
해 열리게 된다. 지난 2년과 동일하
게 올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
지고 도네이션을 해주셨으면 한다”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스태프들 왼쪽부터 지휘자 전중재 교수, 단장 주재입 목사, 부단장 정선옥 목사, 심진구 목사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열린 제4회 성인분노조절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박혜영 카운슬러가 강의하고 있다



남가주든든한교회 찬양팀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주가 일 하시네” 주제

남가주든든한교회 찬양의 밤 성료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찬양의 밤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주제로 24일 저녁 7시30분
은혜가운데 진행됐다.

본 교회 찬양팀(리더 김홍철 전
도사) 주최로 개최된 찬양의 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
을 향한 사랑을 담겨 고백했다.

찬양제에 앞서 홍광순 권사 사회,
손덕수 집사 기도에서 이어 단에 오
른 김현인 담임목사는 시편 96편의
말씀을 전하며 찬양의 소중함과 함
께 “호흡 있는 동안에 잠깐 찬양하
는 성도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단에 오른 찬양팀은 ‘갑사
해’를 오픈닝 송으로 선사하고 총 3
부로 나눠 찬양을 올렸다. 특히 이
번 찬양의 밤에 찬조 출연한 본 교
회 주일학교 찬양단 어린이들은 ‘
고백’, ‘Step by’등을 감동적인 울림과
함께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벤
엘, 호산나 성가대의 특별순서도 이
날의 흥을 돋궂는 볼거리였다.

“남가주든든한교회 찬양의 밤”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고 있으며 이
날을 위해 찬양팀원들은 지난 4개
월간 헌신을 다해 준비했다.

(이성자 기자)

‘내 안의 화, 쿨하게 다스리기’ 주제

한인가정상담소 제4회 성인분노조절세미나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는 제4회 분노조절세미나를 25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성광리에
개최했다. ‘내 안의 화, 쿨하게 다
스리기’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임상심리전문가 박혜영 카운슬러
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상생활에서 겪
게 되는 분노 외의 여러 가지 감정
들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생각을 조
절해 긍정적인 인연과 표현함으로
써 건강한 내면과 인간관계를 유지
하도록 도와주고, 이사회에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
절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
졌다.

박 카운슬러는 “화는 나쁜 감정
이지만 참게 되면 병이 된다. 따라
서 효과적으로 조절해야 하며, 그러
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화법을 배
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
에서 부부싸움은 자칫 잘못하면 아동
학대로 이어지게 된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신
적인 학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지간에 말다툼으로 인해 아이
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 역시
아동학대가 된다”며, “분노조절을

적절하게 하게 되면 원치 않은 불
상사는 예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를 내는 이유로는 원
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 실망,
피해, 당황, 관심 끌기 위함, 무시당
한 느낌, 자신의 감정 감추기, 상황
통제, 격정 등을 들 수 있다”고 언
급했으며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은 남을 탓하거나 추측하게 된다.
또한 꼬리표를 달며, 과잉일반화를
시키며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
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홀리인 콘서트’ 주제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K타운 마켓행사로 성황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의 파
킹랏 콘서트 ‘홀리인 콘서트’라는
주제로 25일 저녁 7시30분 콘서트
장소인 가주영여학교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신동희 목사(대흥장로교회)의 사
회로 시작된 콘서트 1부는 찬양사역

자 이천 목사(ANC은누리교회)의 오
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CCM루키 금
상수상자 김용훈 씨와 은상 수상자
양지아 씨,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자
홍순호 장로의 연주무대가 있었다.

이어 김성아 전도사(은혜한인교
회)의 사회와 노래로 시작된 2부

는 크리스천 밴드인 헤븐스 밴드와
CCM가수 최영영 씨의 콜라보레이
션 무대로 콘서트의 열기를 더해나
갔다. 이어 소프라노 김도희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으며 테너 오
위영 목사(LA은혜교회)와 듀엣으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감미롭게
부르며 가을하늘 밤을 아름답게 수
놓았다.

이날 콘서트는 공연장 주변에서
열린 KTown Night Market 행사
로 관객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공연

서부교계 게시판

라크마 음악장학생 모집

라크마(단장 최승호)는 음악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17세 이
상 음악인의 길을 가기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자이며 전공제한은 없
다. 장학금 내역은 3천달러, 2천달러, 1천달러이며 마감은 11월 1
일(토)까지다.
▲문의: (213)239-3573, info@lakma.com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가을신앙사경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가을 사경회가 11월 4
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회복’이라는 주제로 송민호
목사(토론토 영락교회)를 강사로 진행한다. 또한 미주장신 후원회
의 밤이 17일(월) 오후 6시 30분 옥스퍼드호텔에서 갖는다.
▲문의: (562)926-1023

구세군 나성교회 자선냄비 실시

구세군 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연말을 맞아 자선냄비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기간은 11월 21일부
터 12월 24일까지이며 봉사 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다.
▲문의: (408)480-3171(이주철 사관)

월드미선대학교 2014 후원의 밤

월드미선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선교사 재학생을 위한
‘2014 후원의 밤’을 11월 1일(토) 오후 6시 본교 6층 강당에서 개
최한다.
▲문의: (213)388-1000

포이에마 여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포이에마 여성합창단(단장 정경화, 지휘 박명규) 제3회 정기연주
회가 11월 2일(주) 저녁 7시 은혜의강교회(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에서 열린다.
▲문의: (310)795-9805, (949)922-9609

새누리교회 이단세미나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는 ‘이단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라는 주제로 이단세미나를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주일(추수
감사절 제외)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개최한다. 내용과 장소는 다음
과 같다. △ KM(Hope 채플): 2일 통일교, 9일 신천지, 16일 안식교,
30일 구원회, △ EM(비전채플): 2일 이슬람, 9일 불교, 16일 여호
와의 증인, 30일 통일교
▲ 문의: (650)210-0000



더텐트가 주최한 파킹랏 콘서트가 홀리인 콘서트 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
진은 헤븐스 밴드와 CCM가수 최영영씨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모습

으로 인해 KTown Night Market 행
사를 찾은 젊은이들이 공연장에 들
러 더텐트가 마련한 핫드그와 커피
를 함께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는 더텐트가 탄생할 때 의도했
던 타운 내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
는 장소로 더텐트가 사용되기를 바
라는 마음에 부합하는 것으로 더텐

트 의 파킹랏콘서트가 회를 거듭하
면서 유희문화에 젖어있는 LA한인
타운에 크리스천들이 뛰어나가는
공연문화가 스며들고 있음을 반증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더텐트의 다음 공연은 11월 15일(
토)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서부(CA)교회안내</h2>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반대편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아예배: 오전 9:00, 11:0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2</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ca.com Tel: (323)913-445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영아예배: 오후 12:30 주일부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4부 영아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323)388-7101, F: (32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주요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예배: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든든한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h3>남가주리더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 요 예배: 오후 7:00 새 목 예 배: 오전 6:00(월-토)</p> <p>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Holywave-영아예배) (KDC-말씀예배) 주일부부예배: 오후 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새 목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h3>동문교회</h3> <p>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org</p>
<h3>동양선교회</h3> <p>담임목사: 박형은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예배: 오전 9:30 3부 영아예배: 오전 11:00 4부 영아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 목 예 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정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 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8:00</p> <p>Tel: (213)559-7728 (천안 박성동),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h3>드림교회</h3> <p>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 이 해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h3>미주양광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 목 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아)4부예배: 오후 1:45 새 목 기도회: 오전 6:00(월-토)</p> <p>www.mjpc.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목 기도회: 오전 5:45(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6:00(토)</p> <p>Tel: (213)745-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h3>베델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호 주일 1부: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대형영아예배: 오전 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p> <p>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hpc.org 2720 Montrose Ave., Torrance, CA 91020</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브리지교회</h3> <p>담임목사: 장세경 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영아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목 예 배: 오전 5:30</p> <p>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h3>남가주삼성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회 교: 오전 1:30 수 요 예 배: 오전 11:30 새 목 기도회: 오전 5:40(월-토) 비전(18세기):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p> <p>www.samsungchurchof.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p>	<h3>새천양교회</h3> <p>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새 목 기도회: 오전 5:40(월-토) 새 목 예 배: 오전 6:00(월-토)</p> <p>www.newpraisechurch.org / ysyon@gmail.com Tel: (714)826-0100, Cell: (714)84-3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p>	<h3>새생명선교회</h3> <p>담임목사: 김만수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00 성 경 공 부: 오후 7:00(금) 새 목 기도회: 오전 6:0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금 요 예 배: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p> <p>Tel: (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 요 예 배: 오전 5:30(월-토) 새 목 예 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안디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영아예배: 오후 2:00(EM) 금 요 예 배: 오후 3:00(월-토) 새 목 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00</p> <p>Tel: (818)249-0516 / E-mail: bethe@bkc.com www.lhpc.org 2720 Montrose Ave., Torrance, CA 91020</p>
<h3>얼바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목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inut Ave., Irvine, CA 92604</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 목 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h3>월서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중찬양) 새 목 기도회: 오전 5:40(월-토)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주 일 회 교: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3>은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 목 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론</p> <p>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 목 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 목 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lacomestone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평)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새 목 기도회: 오후 3:00(월-토) 영아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g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은퇴선교사가 몰려온다(하)

국제OC선교회 소속인 마서진(61) 선교사는 1998년 45세에 선교사로 파송 받아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선교 행정 일을 하고 있는 그는 미국 출신의 재미교포 2세대. 마 선교사는 아직 구체적인 은퇴 시점을 정하지 않았지만 은퇴할 경우 66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연금과 국제OC선교회 자체 연금 프로그램 덕분에이다. 마 선교사는 66세에 은퇴할 경우 사회보장연금 1700달러와 선교회 직장연금 1000달러 등 매월 2700달러를 받는다. 여기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부인이 받는 연금까지 합하면 노후 걱정은 없는 편이다. 마 선교사는 22일 “연금이 풍족하진 않지만 생활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한국 선교사들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두 종류 연금 혜택 받는 미국 선교사들=미국은 남성 65세, 여성 62세가 넘으면 국가가 생계를 책임진다. 미국 시민이면서 급여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세가 부과된다. 월 납입액은 급여의 15% 정도다. 미국 선교사들도 사회보장연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매월 비슷한 비율의 사회보장세를 후원금에서 내야 한다. 선교사들은 직장연금 프로그램에도 가입한다. 후원금에서 월 2% 정도를 댈다. 이들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개인연금계좌(IRA)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IRA까지 가입하면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월 후원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선교사 입장에서 가입이 쉽지 않다.

미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은퇴 이후 사회보장연금과 직장연금의 수혜를 받는다. 국제OC선교회를 비롯해 OMF선교회,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위클리프) 등 선교단체들은 이를 모두 보장하고 있다. 선교현장에서 은퇴해도 기본

적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일부 선교단체는 주거도 보장한다. 위클리프는 집이 없는 은퇴 선교사들에게 썬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나 이동주택, 의료 서비스

비스가 가능한 요양원을 제공하는 등이다.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도 비슷하다. 이곳 선교사들은 정부의 사회보장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남침례교 자체 연금제도를 통해 은퇴를 준비한다. 남침례교는 1918년부터 ‘가이드스톤’이라는 연금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보험·연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 남침례교 세계선교부(IMB) 아시안 동원담당 신기환 목사는 “가이드스톤은 적합한 은퇴

가진 건전한 기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창출된 이익을 사역자 회원들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은 65~67세쯤 은퇴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받는다. 가이드스톤은 회원이 갑작스럽게 숨질 경우 가족들에게 기본적인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장례 등에 필요한 재원도 지원한다.

◇은퇴 선교사들의 편안함 원터=미국 선교사들은 은퇴 후 선교사 원터도 이용할 수 있다. 독자들에게 의해 설립된 원터는 집이 없는 선교사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주로 1940~1970년대에 파송된 선

해외에서는 어떻게: 미 선교사들 국가·교단 차원 연금혜택 은퇴자원터 제공은 물론 의료서비스도

교사들이 많은데 이들이 선교사로 나갈 당시엔 사회보장제도 외 연금 프로그램이 없었다.

대표적 원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웨스트민스터가든(Westminster Garden)이다. 미국 북장로회 소속 은퇴 선교사들의 안식처로 1950년 12만9400㎡(3만900여평) 규모의 대지 위에 조성돼 타운하우스와 테니스장 수영장 도서관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150여명의 선교사들이 미국 중산층 노인들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노년을 보내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도 이곳을 거쳐 갔으며 해방 이후 첫 선교사였던 최찬영 선교사도 여기서 생활했다.

북장로회 은퇴 선교사 원터가 서부에 있다면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노후를 보내는 원터는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랙마운틴에 있다. 자연경관이 뛰어나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이곳 하이랜드팜에는 한국에서 사역하던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은퇴촌도 있다.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다.

이 같은 원터는 미국의 교단이나 선교단체 등이 운영한다. 미국 WEC선교회의 경우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가 있다.

한국WEC선교회 박경남 대표는 “미국 선교사들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를 혜택을 받는다”며 “그러나 은퇴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에도 현장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기환 목사는 “한국교회도 남침례교의 가이드스톤처럼 선교사 보험·연금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미션하우스도 큰 도움=은퇴 선교사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미션하우스를 제공하는 것은 웬만한 재정규모가 아니면 개교회나 성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나 은퇴 선교사들이 한달에서 1년 정도 머물며 노후를 모색하거나 일시 귀국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미션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성도 개인이 자기 집의 일부나 임대주택을 미션하우스로 개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백승기(63·서울 북아현성결교회) 장로는 15년 전부터 서울 강동구 자택 1층 59㎡를 미션하우스로 내놨다. 선교사들은 월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방 2개와 욕실, 거실이 있는 미션하우스에 머물 수 있다.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일체는 백 장로가 부담한다. 전세로 돌리면 최소 1억2000만원 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포기했다.

백 장로는 “선교 최전방에서 뛰는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살림집의 일부를 미션하우스로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왕이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면 선교사들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조언했다.

김은영(34·여)씨도 지난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차료 35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얻어 선교사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귀국해도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정을 듣고 매달 선교현금을 드리는 심정으로 취사도구,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재도구를 모두 갖춰 놨다. 김씨는 “미션하우스는 꼭 자기 집을 내놔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교사를 돕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전세나 월세로도 충분히 미션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출마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목사와 정 목사는 2009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에서도 맞붙은 경향이 있다. 당시 정 목사는 교계의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선언하며 후보를 사퇴해 양 목사가 당선됐다. 한국교연은 교회 수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 해마다 군별로 돌아가며 대표회장을 선출해 왔다. 차기 대표회장은 3500개 교회를 초과하는 교단들로 구성된 가군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가군에는 예장통합과 백석, 합동개혁이 속해 있다.

특히 맛대복음은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인 존 로스(1842-1915)

하나님의교회 포함 9곳 이단 지정 추진

기감 제31차 정기총회에 상정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홍중인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9곳을 이단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오는 30-31일 열리는 제31차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기감이 특정 단체들을 무디기로 이단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건 처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과 더불어 국내 3대 개신교단으로 꼽히는 기감의 결정은 다른 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감 교육국에 따르면 기감 산하 기구인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이단대책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하나님의교회, 구원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동일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여호와의증인,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물론교), 전능하신하나님의교회, 제철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등 9곳을 이단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기로 했다. 이단대책위는 기감의 이단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신학자와 기감 교육국 관계자 등 약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전용욱 감독회장이다. 기감 총회는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열리며 안건 통과 여부를 표결과 거수 등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지는 미정이다

기감 관계자는 “주요 교단들이 이들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감의 대응은 늦은 측면이 있다”며 “이단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건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감은 그동안 이단 대응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감이 특정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한 건 1998년 제23차 총회에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를 지정한 게 유일하다. 반면 다른 주요 교단들은 이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예장합동과 통합만 하더라도 하나님의교회 구원회 JMS 다락방 신천지 등을 이미 이단으로 규정하고 다양하면서 강력한 이단 척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홍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기감은 그동안 이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오지 않았다”면서 “기감의 이번 결정은 사이버 이단 집단들과 싸우고 있는 한국교회에 무척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회장은 “이단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초교파적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기감이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단에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감은 이들 집단에 대한 이단 지정과 함께 국내 이단문제를 정리한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 책자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단 시비를 낳은 단체들의 교리와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다. 기감은 추후 이단경계주년을 지정하고 일선 교회에 이단 대처법 등을 담은 각종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애기봉 등탑 철거 엇갈린 교계 반응

경기도 김포 해방2사단 전방대에 설치된 애기봉 등탑이 안전문제로 지난주 철거된 것과 관련,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연회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23일 논평을 내고 “애기봉 십자가 등탑은 1971년 세워진 이후 43년 동안 전방지역 성탄절 점등 행사의 명물로 널리 알려졌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던 명소로 자리 잡았다”면서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도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에 종교시설물을 세운 것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애기봉 등탑은 다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기봉 등탑은 단순히 낡은 철 구조물이 아니라, 종교를 통한 인류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이라며 “어설피게 북한 입장만 고려해 철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애기봉 인근의 한 목회자는 “1주일 전에 올라가 보니 철거한 상태였다”며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보강하면 되는데, 강풍 등에 부서질 위험이 있어 철거했다는 군의 발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건 등탑 자체를 없앤 것

은 결국 북한의 눈치 보기인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등탑 철거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2년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을 주도했던 한반도프로세스포럼 대표 김충립 목사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위해서는 애기봉 점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군은 교계와 평화공원 조성을 함께 추진 중인 김포시 등과도 아무런 협의 없이 애기봉 등탑을 철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군과 협의해 등탑을 철거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면서 “국방부 시설이기 때문에 알려줄 의무는 없었지만, 군이 갑자기 등탑을 철거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등탑을 철거한 자리에 내년부터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공원은 54m 높이의 전망타워와 함께 평화·생태전시장, 평화광장 등을 갖춘 예정이다.

해발 165m 애기봉 정상에 등탑을 세워 처음 불을 밝힌 것은 1954년이다. 이번에 철거된 등탑은 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웠다. 애기봉 등탑의 불빛은 20-30km 떨어진 개성시 내에서도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은 “괴뢰들의 반공화국 선전”이라며 비난해 왔다.

130년전 맛대복음·신약전서…

한글성경 희귀본 세상 밖으로

한국교회 초창기 한글 성경 희귀본이 공개됐다. 1884년판 쪽복음 ‘맛대복음’, 190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된 ‘신약전서’.

‘압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130년 전에 쓰인 한글 마태복음 1장 1절(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은 한참을 들여다본 뒤에야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구절은 알렌 선교사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1884년 중국에서 몰래 전해진 쪽복음(단편으로 인쇄·제작된 성경) 희귀본 ‘맛대복음(마태복음)’의 첫 대목이다.

21일 서울 은평구 연서로 은평역 사한옥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이달 초 개관한 이곳에서는 은평구민들이 소장한 유물을 모아 놓은 ‘우리 집 보물찾기-은평구민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물은 안익태 선생의 코리아판타지(애국가) 친필 원본 악보와 전시관 중앙에 자리 잡은 초창기 한글 성경이었다.

특히 맛대복음은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인 존 로스(1842-1915)

선교사가 중국 선양(瀋陽)의 동관교회에서 제작한 쪽복음 중 하나다. 로스 선교사는 맛대복음에 앞서 1882년 한글로 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각각 발간했고, 1885년에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했다. 이어 1887년 최초의 한글 신약성서인 ‘예수성경전서’를 세상에 내놨다.

박물관에 전시된 맛대복음은 독특해 보였다. 복음서 한쪽 면에는 마치 다른 책처럼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소장품을 출품한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심한보(67) 원장은 “1880년대에는 외국 종교 서적 유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표시가 드러나지 않도록 낙서를 하거나 한문 서적 등으로 위장해 들여온 쪽복음이 많았다”면서 “이 책도 그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맛대복음 바로 옆에는 190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된 ‘신약전서(신약전서)’도 눈에 띄었다. 박물관 자원봉사자 한준섭(77)씨는 “한국의 성경 번역사는 물론이고 한글 자모와 인쇄술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선교사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연금과 교단 목회자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굶더라도 심일조는 꼭 하지 않습니다. 마 찬가지로 은퇴 후 삶을 위해 국민연금과 교단연금을 심일조 드리듯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조일래 인천 수정성결교회 목사)

조일래 목사의 말은 한국교회가 주·건강·사역 문제라는 ‘쓰나미’에 직면할 2만 선교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충고다. 전문가들은 은퇴한 선교사들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선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교단과 교회, 성도들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금으로 노후 해결토록 교단이 대안 마련해야”=조 목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장과 총회장으로 수십 년간 선교현장을 누비며 선교사들의 애

안을 마련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10년 넘게 투병 중인 김광수(65) 선교사의 아내 송재은(60) 사모도 “선교지에서 뼈를 문졌다”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무작정 달려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라며 “선교사는 의료·상해·질병 등 필수보험과 연금에 반드시 가입하고 정기 건강검진도 꼭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과 은퇴 후 사역도 지원해야=선교사가 연금을 철거할 준비해두고 비용이 드는 주거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황윤일 페루 선교사는 2011년 9월 ‘선교와 신학 28집’(장신대 세계선교연구원)에 게재한 글 ‘선교사 은퇴 후 복지문제’에서 “선교사들이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이었으며, 은퇴 후 귀국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GMS 이사장은 “현재 소속 선교사 중 49가정 73명이 은퇴했으나 주거문제도 대부분 선교지로 다시 나갈 상태”라며 “은퇴 선교사들의 주거문제와 선교회 정관상 신분보장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아래 경기도 화성 팔탄면에 40여개의 원룸주택을 건축하고 정관상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서울은혜교회도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에 은퇴 선교사의 노후를 위한 ‘생명의 빛 예수마을(예수마을)’을 건립했다. 예배 및 세미나 시설, 식당,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갖추고 있다. 현재 19개에 걸친 스트하우스는 1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향후 상담 및 선교사 위기관리센터도 세우고 상주 의료진도 배치할 계획이다. 한국OMF도 한독직자가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2만여평의 땅을 제공하기로 해 은퇴 선교사를 위한 마을 건설을 추

한국교회, 빈틈없는 준비를: 선교지 생활 힘들어도 노후 연금 꼭꼭…

귀국 후 주거문제는 한국교회가 도와야

환을 살렸다. 수정성결교회는 ‘이웃에 복음을, 농어촌에 선교비블, 온 세계에 선교사들’이라는 표어 아래 재정의 절반 이상을 선교비로 지출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다. 조 목사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만나면 꼭 해주는 말이 있다. “연금은 꼭꼭꼭꼭 부딪고 선교지에서는 절대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다.

조 목사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돈 문제에 몰두하면 영적 권위가 떨어져 뜻뜻하게 사역할 수 없다”면서 “선교사는 은퇴 후 연금으로 산다는 생각으로 선교지에서는 저축하지 말고 소신했 일해야 한다. 그리고 철수할 때는 모든 재산을 현지 선교를 위해 내놓는 게 선교사의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교사들의 ‘건강한 은퇴’를 위해서는 교단이 먼저 거시적 대

도 주택 문제였다”고 소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사관리부 남수현 목사는 “교단에 40여개의 안식관이 있지만 은퇴 목사가 우선이며, 국내 목회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반면 선교지에 오래 있던 은퇴 선교사들은 정보도, 인맥도, 연고도 없다 보니 한국에 오기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장 이재경(55) 목사도 “무엇보다 은퇴 선교사 거처인 ‘미션하우스’가 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모범적으로 미션하우스를 운영하는 곳은 국내 최대 선교교회인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와 남서울은혜교회(박완철 목사)다. GMS는 2006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근처에 다가구 주택 2동을 사서 미션하우스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호

진 중이다.

은퇴 선교사들에겐 제2의 사역도 필수다. 전철환(65) 목사의 경우 한국외향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26년간 선교사역을 펼쳤다. 2001년 한국외국인선교회(fankorea.org)를 설립하고 30개 지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돌보고 있다. 전 목사는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은퇴 선교사야말로 국내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라며 “은퇴 선교사들이 국내 사역을 적극 개발하면 후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 목사처럼 선교지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사역을 찾을 수 있도록 교단과 선교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양병희·정서영 목사 맛대결 양상

12월 2일 한국교연 대표회장 선거

오는 12월 2일 실시되는 한국교회연합(한국교연) 새 대표회장 선거는 양병희(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영안장로교회) 목사와 정서영(예장합동개혁, 천신중앙교회) 목사 간 2파전이 될 전망이다.

한국교연 관계자는 26일 “후보 등록기간(내달 11~12일)이 남았지만 예상대로 예장통합 총회에서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경우 한국교연 대표회장 경쟁 구도가 양 목사와 정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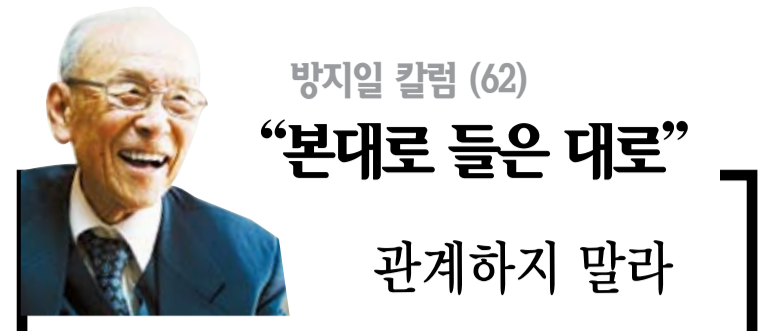
사, 두 분의 양각 대결로 좁혀질 전망이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는 양 목사. 양 목사는 지난 20일 백석 총회 가 만장일치로 후보로 추천했고 21일 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교계 연합기구 임원을 두루 거친 양 목사는 “큰 교단이나 군소 교단이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능력 있는 분

크리스천 리더십 (6)

- 느헤미야의 리더십(4) 동기부여를 잘 하는 리더 (느헤미야 2:10-18)

번역 및 요약: 최운동 목사 (감사한인교회)



방지일 칼럼 (62)
“본대로 들은 대로”
 관계하지 말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폐쇄감이 젖어 있었고, 무관심하고, 파괴가운데 살고 있었다. 지난 90년 동안 누군가 성벽을 쌓으려고 두 번이나 노력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은 모두 부정적이 되었다. 90년 동안 그들은 그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왔다. 느헤미야는 그 때 나타난 것이며 며칠 만에 그는 도시 전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어 그들을 함께 모으고 움직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참담하게 실패한 일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의 비결은 바로 동기부여에 있었다.

한다면 반대가 있을 것을 예견하라.

2.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라(11절)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변화를 제시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적절한 때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11절에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 3일을 머무른 후에 나는 시작했다..." 느헤미야는 삼일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왜 그가 그곳에 왔는지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였을까? 그는 아마도 쉬면서 오랜 여행에서 회복을 취하며 기도하고, 계획과 전략을 만들었을 것이다

3. 현실을 먼저 파악하라(12-16절)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밖으로 나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조사하는

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무능함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는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한다. 좋은 리더는 그를 따르는 사람과 같은 동질감을 보인다. 그것이 동기부여를 강하게 만든다. 리더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은 나의 일도, 당신의 일도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5. 문제의 심각함을 극적으로 보여주라(17절)

17절에서 느헤미야는 감정적인 언어 그림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불타고,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현실의 심각성을 극화하고 있다. 왜 그런가?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소"라고 현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변화는 사람들이 불만족을 느

기되었습니. 이 일은 불가능하오! 그냥 집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재건합시다!"라고 외친다.

리더들은 현실과 이상을 둘 다 바라본다. 그들은 현실 자체를 보면서 또한 그 가능성을 바라본다.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만을 보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비전 제시가일 뿐이다. 반대로 현실을 보고 이상을 보지 않는 사람도 리더가 아니다. 그는 회계사일 뿐이다. 리더는 현실과 미래의 가능성 둘 다를 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릴 때 리더십이 나온다.

7. 개인간증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라(18절)

느헤미야는 18절에서 그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성벽재건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확신시키

교회를 떠나는 목사님에게 후임은 목사님 관계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 자주 들린다. 하기가 은퇴하든지 떠나면서 관계할 것도 없는데도 있을 수 있으나 자기가 오래 묵혀둔 교회라 그보다 더 교회를 잘 아는 이가 없을 것이다. 자기 뒤를 이어 교회에 맞게 묵화할 후임을 생각하게 됨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자연스럽게 제일 관심 가진 일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이번 부산에 잠깐 들렸는데 그런 말들을 듣는다. 계시던 목사가 마음에 안들어 자기 같은 목사를 소개할 것이라 한다. 생각하면 일까? 주권이 교회에 있다. 장로에게 있다 함을 나타내려 함인가? 거기 개재한 생각이 있기가 하겠지만 좀 달구지의 뼈거덕거리는 소리같이 들린다.

교회는 상회의 소속이다. 교회의 동의에 의하여 그들이 청원대로 합법적일 때는 노회는 허락한다. 그러나 당회장은 임시라도 노회에서 보내게 된다. 근자에는 묵화자를 초청함에 신문에 공고하여 이력서 또 설교테이프를 제출케 한 후에 서면으로 심사하여 수십명 제출자 중에서 몇 명으로 압축하여 다시 그 중에서 뽑는 식이 거의 상식인 듯 하다. 나는 이런 일련의 일에 대한 거부감을 말할 마음이 없다. 한 회사나 기업체에서 모집하고 하는 식이라 할 것이다.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고 법대로 안수받은 목사라 누구나 다 같은 자격이 있으니 여러분 가운데서 내 교회에 맞을 분이라 해서 택하게 되는 양상이다.

우리에게는 정이 앞서고 서양인에게는 머리가 앞선다. 가슴 머리 어느 쪽이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다정다감 이런 인성이 앞서게 됨으로 이성적이 못이 있지만 교회는 집이라 거기는 정이 우선이라 할 것이다. 내가 오래 섬겼던, 내가 맡았던 양을 다른 목사에게 인계함에 선임 목사의 관심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일은 관계 마세요, 함이 좀 각박하게 보인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으로 있다가 물러가니 내 할 일은 이로서 끝났다. 그러기에 서구에서는 아예 떠나는 목사는 멀리 가서 그 교회출석도 하지 않음이 좋다고 한다. 좋다함보다 몇 마일 떨어지라는 규정까지 있다한다. 가까이 있으면 후임이 어렵다. 말썽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하여 원로목사 제도를 없애자는 말도 듣는다. 이제는 정이 시대는 지나가기 때문인 듯도 하다. 기량 있는 은퇴 원로목사는 후임에게 짐되게 하지 않을 것이요, 양아 되기도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까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원로가 주례해준 이가 그 자녀의 혼기가 되었다. 나를 주례하신 노 목사님께 내 자녀도 해야 한다고 하게 될 때 담임목사에게 의논해야지오, 어느 담임목사가 이런 말이 있는데 '안되요' 할 수는 없게 된다. 아예 이런 관계는 금을 그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하니 애초에 말썽이 떠나는 것이 좋다는 말도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교회로선 나가는 목사는 후임이건 교회행정에 관계 맡아주세오 뜻을 박아놓는 식이라면 이해할만 한 것이다. 너무 정에만 치우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머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요청도 없다. 의례히 교회행정을 맡은 이가 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결그러움이 없다. 정답게 살아 정을 더욱 돈오면서오 이제 우리네도 이성적 삶도 있어야 할 것이다. 후임책정에 관계 마세요 말을 듣기 전에 애당초 은퇴하면서는 행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노회가 알게 될 때 전일 목사님에게 후임에 대한 자문이 올 것이라 본다. 피차 이런 지경에서 물러가는 이와 교회와의 정이 통하면서 결그러움은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은퇴한지 근 20년(1997년 현재:편집자주)이 되어간다. 아직까지 이만치 지내면서 때로 들려지는 은퇴 원로목사와 교회간에 유행유가 마른 것 같은 뼈거덕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괴로움이 있어 한 자 적는다. 이런 문제가 전연 없을 때, 후임에 옛날에 이런 문제도 있었군' 하며 정형을 알리는 일이 되기도 할까해서다.

(1997년, 4권)

반대를 예상하고 적기를 기다리며 현실 파악 동질감 주고 현실 인정시켜 구체적 반응 얻어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당신이 "무언가 합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 뛰어 일어나 "하지 맙시다"라고 반대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세움시다"라고 말하면 사탄은 "다 일어나 반대합시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변화에 대해 저항적이다. 그들은 현상유지 status quo를 원하는데 그 말의 뜻은 라틴어로 "영망진창인 상태에 있는 것"이란 의미이다.

장면이 나온다. 그는 개인적으로 한밤중에 그 손실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14절에는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서 그는 말에서 내려 걸어들어갔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사역의 크기를 짐작하기 시작하고 생각한다.

리더십 법칙: 리더는 계획을 너무 서두르다 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좋은 리더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상황을 조사한다.

4. 다른 사람들과 동질이 되라(17절)

모든 좋은 리더들은 언제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나는 당신들과 한 멤버입니다"라고 말한다. 17절에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다 와서 우리 같이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불명예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느헤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 성벽을 다시 쌓을 것이요" 식의 우월함

끼기 전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만족하면 어떤 것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리더가 교회나 학교, 직장, 집, 사무실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특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영광을 위해 벽을 재건합시다!"라고 말한다. 그는 올바른 동기부여를 사람들에게 하며 도전하고 있다.

6. 구체적인 반응을 요구하라(17절)

17절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다 엉망입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말한다. 그는 행동을 요구한다. 그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현실적이면서 긍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그것이 좋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균형감이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파

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벽재건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둘째로 환경이 그를 도와주었다고 한다. 환경이란 페르시아 왕이 가까이 그를 도와주기로 한 것을 말한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왜 그의 개인 간증을 사용했는가? 그는 리더십에 대한 고전법칙 중의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따른다는 사실이다. 그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바로 리더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당신의 리더로 따라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리더의 삶 위에 계시는 성령을 느낄 때 리더의 비전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리더의 비전이 아니고 모두의 비전이 되는 것이다.

(끝)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전 5:30 (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22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917)344-6446, Fax. (91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벨연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아):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노년회: 오전 10시, (월-토) 오전 11시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8, Fax. (508)435-5467 2 Main St., Hix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 등교예배: 오전 11:00 Tel. (704)639-0900 / 0989(컬스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8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c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seattle.org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3)536-6675, Fax. (253)888-9249 706 Wilmer Rd., Hort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기도: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임성론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EM)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 7시(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월/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영) 새벽기도회: 오후 2:00(월-토)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찬양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화-토) Tel. (253)536-6675, Fax.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청년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kpcca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케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도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1:11)”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케냐 마싱가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곳 마싱가는 비 오기 전 몇 주는 해도 더 뜨겁고, 너무 더워서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호수의 물도 없고, 소가 먹은 풀도 없어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소달구지로 1-2시간을 멀리 가서 구해 오고, 물값도 올라 많이 달라고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덥고, 비가 많이 내렸고, 나무 잎도 다 떨어졌습니다. 계속 기도해주셔서 힘들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케냐는……. 케냐는 치안이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은 치안상황이 호전되었음을 감안하여 나이로비에 발령되어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30일로 해제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한 동안 중단되었던 국제범죄재판소(ICC) 재판이 다시 시작되어 우후루 대통령은 10월 7일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났습니다. 재판이 얼마나 오래 진행 될지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무순 일인지 2일 후에 케냐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케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선교사 자녀학교 학생들이 중간방학을 맞았습니다.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 등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은 매번 아이들을 데리러 올 수가 없어 자녀들을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돌보아주거나 한인교회 집사님이 돌보아주거나 하는데, 12일 주일 교회에 다녀오는 사이 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집사님 집에 총 든 강도가 왔었습니다. 물건만 가져가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않았으나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월요일에 학교로 일찍 돌아갔습니다. 선교사들에게나 자녀들에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싱가 신학교 신학교는 은혜 중에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1학년의 4복음서와 4학년의 비교종교학 2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특히 학비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부모가 없어서 누군가 학비를 대주었는데 그분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셔서 더 이상 후원이 없어졌습니다. 내년엔 졸업할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교장 폴 물과 목사님은 목요일이면 학생들과 함께 신학교 주변을 청소하며, 나무 심을 곳을 땅을 파고 비오면 나무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신학교에 새로운 선생님 디도 은조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은 모두 5명입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과정 학생 16명이 9월 4일부터 7일까지 나망가에 있는 마사이교회에서 전도사역을 하였습니다. 마사이 소동 집에서의 경험과 전도하여 영혼을 구하는 귀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철 울타리가 없어서 늘 소나 염소들이 들어와 나무나 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놔두고 다닙니다. 현지인들이 오히려 저희들을 걱정하고 봐주기도 합니다. 키바에 사는 교인이 펜스를 3개 기증해주어서 신학교이사회에서 선생들이 거주하는 주변에 철조망을 해주었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땅에

박고, 철망을 두르고 펜스를 조금 들었습니다. 아직 펜스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철망으로 동물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도 돈이 없지만 저희들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이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늘 물어오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가끔 만나도 사주고, 집에서 기른 닭, 달걀, 야채들, 콩, 파파야 등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랑에 견디기도 하는가 봅니다.

건축 지난 편지 이후 미장이를 구하여 바깥 부엌과 재래식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일군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덥고, 물도 구하기 힘들어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먹은 수돗물을 사오는데 기다리는 줄도 길고, 너무 조금씩 나와 1-2시간을 기다려 6리터의 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물이 많이 없어 절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게 모든 일들이 선하게 진행되기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번 AIM 케냐지부에서 허락한 신학교 식당 겸 예배실 건축을 위한 건축비 12,000파운드를 영국으로부터 받았습니. 아직 유치원 쪽 건축이 끝나지 않아서 또 다른 건축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기공예배를 9월 18일에 드렸고, 돌과 모래 등 자재들을 사 놓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3월 졸업식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훈련원 아직 엘도렛의 선교사 학교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은 4월, 8월, 그리고 12월에 2주씩 4과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잘 훈련하고 많은 현지인 선교사들을 미전도종족에 파송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시간을 내셔서 강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교사대학(ECDE)은 이사회에서 다른 학교처럼 내년 4월에 개강하면 좋겠다고 하여 준비할 시간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Diploma는 23과목, Certificate는 24과목을 2년 과정으로 4월, 8월, 12월에 3주간씩 공부를 합니다. 유치원은 1월에 개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들, 여러 비품들을 만드는데 힘들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며,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아이들이 잘 아프기도 하고, 부모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아직 어려서 독립되어 나가는 과정에 걱정과 아픔들이 있기도 합니다.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게 공부와 일들을 잘 병행해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많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힘을 더 내어 준비하는 일들을 하나 하나씩 잘 해나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 드리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십시오.

기도제목입니다. ◆ 마싱가 신학교가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군들을 길러 내도록 ◆ 화장실과 부엌 건축이 잘 마쳐지고, 교회당 및 식당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 선교사 훈련 센터, 유치원 교사 대학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유치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 가족의 건강을 위해, 특히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사랑이 저희의 버팀목이 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좋은 소식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10월 케냐 마싱가에서 이 사야, 이에경 선교사 드립니다. isaiah.lee@aimint.net

태국

마하싸라감 교회건축

지난 6월24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우기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 지연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했는데 밤이면 비가 오고 낮에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어 2층까지 큰 어려움 없이 기초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을 통해 건물만이 아니라 저와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안전하게 완공되며 교회된 성도들이 강건하게 서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 영어 수업 및 음악 수업

지난 5월부터 이장님의 요청으로 교회에서 약 10km 떨어진 쿠어팍 마을과 남캄 마을에서 영어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만 가르치다가 8월부터 수업 시작 전에 성경공부를 합니다. 영어수업과 성경공부를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며 그것을 통해 학부형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타와 키보드, 바이올린 수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업을 인도할 선생님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역자들이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방사역-차양크라마 마을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해 차양크라마 마을에 빠르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체증으로 식사를 못하시던 맹 할머니는 교회 오신 첫날부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맹 할머니의 간증으로 여러 가정의 저희를 초청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세가 호전되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의 소식이 마을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치유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우상숭배를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습회 및 세미나

많은 분들이 마하싸라감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성상 선교사님, 장충민 선교사님, 양지용 선교사님이 멀리 차양마이에서부터 방문하여 셀그룹 세미나를 인도해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방콕 엔젤센터에서 사역하시는 김재연 선교사님이 방문하여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YWAM 동북부지역 디렉터이신 김남현 선교사님이 방문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야싸라감 켈라진 차양크라마

최유미 선교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5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5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고시 일자: 2015년 5월 11일(월)~13일(수) 뉴욕장소, 5월 15(금)~18(일) 브라질장소
- 고시 장소: New York,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주사랑장로교회: 이길호목사사무) 209-08, 48 Ave., Oakland Garden, NY 11364 Brazil Iguazu (고시부서기에게 문의바람)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 제출고시 내용
 - 구약 주해 - 창세기 6:1-4
 - 신약 주해 - 사도행전 9:10-19
 - 논문 제목 - 개혁주의입장에서교단의필요성에대하여논하시오
 - 설교 본문 - 이사야 40:26-31
 -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필기고시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설기교사를 지를
-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5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명함판 사진 2장
- 고사료: \$150.0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5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는 39회 총회기간(5월 19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고시생은고시부서기(김영기목사에게)시험기간(11일~13일 2015년뉴욕장소, 15~18일 2015년브라질장소) 중사용할속도를예약할것.
-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 김영기목사 (Rev. Young Kee Kim) / Email : youngkey48@gmail.com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Cell: (443)520-5242

8. 기타 문의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고시부 부장 : 이길호목사(718)309-3376, kilhee2003@yahoo.com
- 고시부 서기 : 김영기목사(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고시부 회계 : 하윤준목사(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5.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Dates: May 11(Mon.)-13(Wed.), 2015 (New York); May 15(Fri.)-18(Mon.), 2015 (Brazil Iguazu)
- Place: New York;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209-08, 48 Ave, Oakland Garden, NY 11364 Brazil Iguazu; Inquire with the Clerk of the ExaminationCommittee :

3. Examination Subjects

-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OT Exegesis Text - Genesis 6:1-4
 - NT Exegesis Text - Acts 9:10-19
 - Thesis Topic - Discuss the necessity of denominations from a Reformed perspective.
 - Sermon Text - Isaiah 40:26-31
-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all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 too big

4.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5.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candidates.
-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9-22).
-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appropriate examination dates (New York: May 11-13, 2015 or Brazil: May 15-18, 2015) through Rev. Young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Young Kee Kim / Address: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Cell : 443-520-5242 E-mail : youngkey48@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Kil Ho Lee (718)309-3376 (kilhee2003@yahoo.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oung Kee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72)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여전히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의 경제의 위기는 한인가정들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가정들은 이민이면서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선진적 삶에 대한 꿈을 더 이상 꾸지 못하게 되었으며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대신, 당장 내일의 생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도박문제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가정들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가장 많은 도박의 문제는 주로 카지노를 통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국사회 도박문제의 주를 이루는 불법사설도박 등의 문제가 한인사회에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사회에서 합법화되어 있는, 그래서 생활 깊숙이 들어

베이거스에 여행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심심풀이로 즐겼다 할 수도 있겠고, 이것이 중독으로까지 이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경제적인 타격 또한 없었다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많은 경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카지노 등의 도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로소득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에도, 이를 카지노 등의 도박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카지노 등의 도박에 대해 진지하게 경계하지 않는 사이에 많은 한인 교인들이 이미 심각하게 도박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으며, 아무리 돈을 잃어도 한방에 만회

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한인교회 지체들에게 도박이 하나님의 법과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신앙적 교육과 더불어 도박의 폐해와 그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박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도박이 초기라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중독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이것을 초기에 진압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진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 또한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들을 위한 상담전문가를 수배하여 연결해주고 약물치료 등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도박중독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문제에서 가정 붕괴까지 초래 교회에 예방교육 철저히...도박중독자(가정)에겐 치료와 격려 필수

와 있는, 카지노를 통해 한인들은 보다 쉽게, 또한 경계심 없이 도박이라는 것을 대하게 되고 또한 빠져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카지노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어있으며, ESPN에서는 포커를 하나의 스포츠처럼 중계를 하고, 또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 플레이어로서 프로 스포츠 선수와 같은 일종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대학의 한 전공으로 학문적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도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특히 카지노에서의 도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듯 합니다.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 같기 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들의 경우엔 험겨운 생활의 활력으로서, 기분전환으로 생각하고 카지노의 문을 두드렸다가 도박에 빠져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돈을 따면 따는 대로, 잃으면 또 잃는 대로, 일단 발을 내딛으면 앞서 말한 험겨운 가정경제 상황 및 그로 인한 좌절감 박탈감 등과 뒤섞여 중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인교회의 지체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도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 단순히 유희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라스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가족도 의연하고 다른 경제활동도 포기하고, 정말 끝까지 도박을 하는 소위 도박 중독이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족경제가 파탄 나고 배우자의 도박중독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이후 가정에 돌아갈 수도 없어 개인적 삶이 망가지고 이후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서 제외되고 복귀도 어렵게 되고 또한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실한 노동을 통해 가정의 삶을 영위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하나님의 칭찬기로서 건강할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한방주의에 기대어 피폐한 삶을 이어가며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숭배가 그 근저에 깔려 있어 교회가 더욱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한인교회에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개입하여 교육해야 할 한인지체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중에서도 시급을 다루는 문제들 중 하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역자들은 우선 도박에 대해 더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가볍게 여기거나 묵인하는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일

이도록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방면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방, 초기대처, 및 회복 등의 도박 및 도박 중독과 관련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자체에 대한 확실한 경계와 더불어 도박을 행하고 또한 특히 중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회의 포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 교회적 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도박 자체에 대한 경계는 느슨하면서도 도박 중독자들에게 대해서는 마치 상종 못할 죄인으로 보는 경향은 완전히 뒤바뀌면 좋을 것입니다.

도박 자체에 대한 경계를 보다 확고히 하되, 도박중독자들에게 대해서는 다 함께 도와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당사자와 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아를 상실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좌절하고 두려워 할 중독자들에게 더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지지하는 공동체, 또한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도박중독자들의 가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하나님의 사랑(요3:16)찬418장

신자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최고 보화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 구절은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성부의 불타는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증명됐고(롬5:8) 그 큰 사랑으로 교회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선행, 공적, 수행, 정성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때문에(because)"의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에도 불구하고(despite)"라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

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독생자의 자원하는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대로 순종하신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롬5:5). 셋째,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화 태초에 계신 말씀(요1:1-8)찬102장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의 하나님되심을 선포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세 가지 상징어를 통해 증거합니다. 첫째, 말씀(로고스)입니다. 필로가 말하는 무인격적 인 것과 전혀 다른 로고스로서 만물의 기초요, 창조주요, 다스리시며, 사람과 교동이 가능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 주신 분,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생명입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자체가

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가 없으면 생명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분리된 영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빛입니다. 그 말씀이며 생명인 그가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첫째 날 창조된 "마음(The Light)"입니다. 태양과 구름보다는 근원적 빛입니다. 그 빛을 받은 신자는 그 세계를 맞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분 중심하여 겸손히 그 분을 모시고 살아 갑시다.

수 생수의 강(요7:37, 38)찬200장

장막절 불빛이 희미해져가는 때, 주님이 외치신 본문은 그 자신이 장막절의 완성이란 선언입니다. 고달픈 광야생활의 안식이 된 장막,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르비딤 생수는 모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음이 알려졌습니다(고전10:3). 육신의 장막은 구원의 참 안식처가 바로 주님이시며 광야의 식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며 반석에서 터진 생수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완성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의 의식주를 오직 주님 한 분 안에서 구합니다. 아니 그분을 모시고 그 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식과 부요를 누리 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래와 같이 초청하셨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갈 수 있고, 둘째, 영혼(배) 문제부터 해결하셨고, 셋째,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넷째, 그러기에 주님께 가서 물을 마시듯이 그 분과 그의 말씀에 연합해야 합니다.

목 아들의 증거(요8:42-51)찬325장

그리스도는 본문에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첫째, 성부에게서 소속된 자는 성자에게로 오며 성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49). 그러므로 성자는 죄가 없었습니다(46). 둘째, 마귀는 욱심꾸러기, 거짓말쟁이, 살인자, 선기가 없는 놈입니다(44). 그에게 소속된 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신 성자를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51)는 약속

에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현재 영생을 가지며 영원히 영생을 맞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기에 성경 한 구절을 대할 때마다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나의 의지, 목적, 성향, 그리고 방법의 그물을 말씀의 바다에 던져 때를 따라 공급 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금 연합인 구원(요6:56)찬238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요6:56)에 나타난 구원이 돌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구원의 풍성함을 보인 것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 후 새 살까지를 포함시킨 것과 같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새 옷을 입고 단장을 꾸며 새 신을 신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연합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 지

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가리키며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중심이 돼 풍성한 구원의 세계로 이끄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서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삶을 달리 설명한 것입니다. 이 풍성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만 나의 것이 됩니다.

토 생명이신 예수(요6:35)찬474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리라"는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연장으로 보여주듯 설명하는 한 그림제시입니다.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며 참 만나이며 참 영생수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떡 외에 물까지 같은 뜻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란 것입니다. 두 가지 약

속이 나옵니다. 첫째, 풍성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배고프거나 목마를 일이 전혀 없는 풍성의 약속이고 둘째, 현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절대보장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가져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만나와 르비딤의 생수를 먹고서 만족했다면 참 만나 참 생수를 먹고 마신 자는 더 큰 만족이 따라야 합니다. 이 영광스런 구원을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갑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82)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p> <p>담임목사: 권태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Tel. (82)397-6754-5 군포시 금포동 870-10</p>	<p>금란교회</p> <p>담임목사: 김경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광주신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기승</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2: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2)523-8491-5, Fax. (82)522-4834 500-170 경교장역사 북구 중앙동 936-1번지</p>	<p>동경중앙교회</p> <p>담임목사: 이강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p> <p>Tel. (82)2-2643-8553-4, Fax. (82)2-264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p>	<p>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장향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p> <p>Tel. (82)397-8383-9, Fax. (82)39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평우</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967(교육부)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p>	<p>명성교회</p> <p>담임목사: 김삼환</p> <p>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p> <p>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p>	<p>새에덴교회</p> <p>담임목사: 소강석</p> <p>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p>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p> <p>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340 (158-808)</p>	<p>성실교회</p> <p>담임목사: 김영복</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www.seongsil.or.kr Tel. (82)2-998-0988, Fax. 9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21-49 (142-073)</p>	<p>성일교회</p> <p>담임목사: 김정곤</p> <p>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30 (토요일을 쉽니다.)</p> <p>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313-26호</p>	<p>수영교회</p> <p>담임목사: 이규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p> <p>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0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p>
<p>수정교회</p> <p>담임목사: 조일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동교회</p> <p>담임목사: 박상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82)732-2341-3, 사택(8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신성동 137번지</p>	<p>시온교회</p> <p>담임목사: 김성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p> <p>Tel. (82)1253-1004, Fax. (82)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서신구 인왕동 419-2</p>	<p>신길교회</p> <p>담임목사: 이신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842-1968, 사택(82)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p> <p>담임목사: 송용결</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6:00</p> <p>Tel. (82)418-0481, Fax. (82)422-0751 서울시 송파구 개포동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p> <p>담임목사: 이정익</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p> <p>담임목사: 조 윤</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p> <p>Tel. (82)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p>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82)5210-5500, Fax. (82)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p>	<p>왕성교회</p> <p>담임목사: 김요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기원</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p> <p>Tel. (82)942-6881, Fax. (8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주안교회</p> <p>담임목사: 주승중</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p>	<p>창대교회</p> <p>담임목사: 최용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p> <p>담임목사: 주서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82)43275-9191, Fax. (82)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p> <p>담임목사: 이진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 운동 (2)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3. 예수회의 선교(16세기)
 마테오리치는 1599년 북경에 도착해서 유교를 믿는 상류층 사이에서 사역을 하였다. 1599년과 1601년에 기록한 그의 책 "Commentari"에는 그의 선교사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616년에 포르투갈에서 온 예수회 선교사가 680명이고 유럽에서 온 선교사가 740명이었다. 그들의 사역은 중국의 교육 영역에 특히 효과적이었다. 예수회의 마지막 선교사는 1814년 북경에서 사망하였다.
 그 외에 프란시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의 선교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조상숭배에 대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조상숭배를 허용하였지만 다른 로마카톨릭 수사들은 조상숭배를 반대하여 천주교에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다. 교황 피우스 12세가 1939년 조상숭배를 용인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천주교는 조상숭배 형식을

와서 1858년 광저우에 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중국에 초기 현대 병원들 중에 하나이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칼빈 마틸(1836-1908)은 1864년 산둥 지역에 도착하였으며 기독교 교육 영역에서 사역을 하였다. 그는 신학과 법학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에 기독교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 주석이 중국을 차지할 무렵 중국에는 1,811,100명의 개신교 기독교인(0.67%)과 11,470개의 교회, 48개의 신학교, 21개의 성경학교, 18개의 기독교 종합대학, 70개의 기독교 병원이 있었고 3백3십만의 로마카톨릭 신자들이 있었다. 이후로 중국 교회들은 공산주의 아래서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였고 중국 정부는 정부가 통제하는 삼자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제하였다.

인구의 1%를 넘기지 못했다. 1948년 전에는 "거북이 교회성장"이라고 불렸던 것이 현재에는 "들불 교회성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1. 서구 식민주의 : "서양 마귀들" 청나라(1644-1912) 시대에 거대한 국가였던 중국은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영주들로 인해서 지방 분권화된 국가로 변화했다. 청나라는 1860년에서 1894년 사이에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초엽에 영국의 군대는 중국에까지 미쳐서 첫 번째 아편전쟁(1839-1842)을 일으켰다. 1852년에 영-불 군대는 두 번째 아편전쟁에서 중국을 물리쳤다. 중국은 외세에 의해서 조각으로 나뉘었다. 상해의 공원 입구에는 "중국인과 개 입장금지"라는 뜻말이 걸리기도 했다.
 중국 중부의 양쯔강 유역은 영국 식

140년간 1% 선교 '거북이 교회성장' 비해 현재는 '들불 교회성장' 중국 근대화는 교회와 서구식민적 선교사 영향 분리로 긍정적 결과

허용하고 있다.
 4. 개신교의 선교(1807-1949)
 중국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는 런던선교회의 로버트 모리슨이다. 그는 1807년 홍콩에 도착해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1834년까지 그곳에서 사역하였다. 허드슨 테일러는 1853년 중국에 입국하여서 1863년 중국내 지선교회를 세우고 1905년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다. 모택동 주석이 1949년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중국에는 중국내지선교회 선교사가 1,300명이 있었으며 외국인 선교사를 모두 합하면 거의 6,000명에 가까운 선교사가 있었다.
 중국에는 북미에서 온 유명한 장로교 선교사들이 있었다. 북장로교회 선교사, 존 네비우스(1829-1893)는 1854년 상해에 들어와서 1877년 산둥 지역으로 들어갔다. 네비우스가 산둥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1900년 6월 한국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들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자치, 자립, 자생)을 선교사들에게 소개했다. 이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에 주춧돌이 되었다.
 미국 의학박사인 존 그래스고 커(1824-1901)는 1856년 홍콩에 들어

5. 근대화 속에 중국교회(1979-)
 1979년 등소평 주석이 중국을 차지하고 네 가지 영역에서 중국의 근대화를 주장하였다. 네 가지 영역은 농업, 산업, 교육, 국방력이었다.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문을 열기 시작해서 병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비록 중국 정부가 선교사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3가지의 긍정적인 요인이 기독교와 관련하여 중국 사회에 나타났다.
 1) 중국 공산 정부는 중국 교회로부터 서구 식민적 선교사의 영향을 분리하였다. 중국 교회는 외국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2) 중국의 많은 학생들이 북미, 유럽, 호주/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에 그들의 교육을 위해 나가서 처음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
 3) 18세가 되기까지 공산주의 교육 아래서 무식론자로 교육을 받은 중국인들이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과 영적인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B. 중국 기독교의 고통
 중국의 개신교인의 인구는 1949년 이전까지 약 140년의 선교에도 전체

민 지역이었다. 중국 남부의 위난 지역은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통제되었고 중국 동부의 산둥 지역은 독일이 그리고 중국 북부의 몽골 지역은 러시아가 차지하였다. 외국 특히 서양의 마귀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폭발은 1900년에 55일 동안 베이징을 포위했던 의화단 사건을 야기 시켰다. 의화단은 236명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130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23,000명의 중국 기독교인을 살해하였다. 의화단은 기독교가 서구 식민제국의 선두주자라고 믿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 상류층 사람들은 기독교를 거부하였다.
 일본의 군대 역시 중국에 진출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을 한국에서 벌여서 중국을 물리쳤다. 일본 군대는 1918년 만주와 시베리아를 침공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1937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중국을 침공하였다. 이것이 중국인들이 당시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외세와 국민당을 이끌던 장개석 대통령의 수하에 비리 공작자들을 대적하고 모택동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역사적 이유이다. (계속)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먼저 동남아 불교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선교적 관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샌드위치 나라로 고난만을 당했다고 말한다.

불안한 인도차이나

2. 왕정정치에서 군부정치로

소승불교의 인도차이나는 70년대 이데올로기의 충돌 때 공산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보는 공산 이데올로기는 불교를 박멸하는데 실패했다. 폴 포트는 많은 중을 죽였지만 불교는 죽이지 못하고, 지금은 도리어 불교가 "방어적 공격"의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인도차이나는 공산주의와 불교가 함께 기독교 선교를 거부하고 있다.

미얀마는 절대왕권이 영국의 식민지배로 일찍 무너졌고, 베트남, 라오스 역시 공산정권의 등장으로 무너졌다. 캄보디아는 왕국이지만 "훈센의 천하"이다. 태국 왕은 신격화되고 있지만 군부통치로 돌아섰다. 대부분 군부일인통치(캄보디아) 혹은 "교대통치", "집단지도체제"이다. 청년들과 지식인들의 저항은 이미 과격한 데모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혼란과 경제쇠퇴의 징조가 보인다. "아노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동남아에서 청년들의 민주화의 욕구는 도리어 선교사를 추방하는 결과로 발전한다. 정치가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회정의와 민주화 바람을 차단하려고 외부의 비판 언론을 차단한다. "타입지"가 종종 판매 금지를 당할 뿐 아니라 선교도, NGO도 경제의 대상이 된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미얀마는 불 축제의 기간으로 절은 물론 상점들과 가정집들까지 촛불을 밤새도록 켜 놓는다. 절 주변에는 자동차 흥수를 이루고 밤에는 불꽃을 공중에 띄우고 축포소리가 요란하다. 이 행사의 유래가 흥미롭다. 석가모니가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길이 너무 어두워 사람들이 불을 밝혀준 데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환영받을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기도정보"(Operation World)에 의하면 미얀마 군부는 기독교를 "C"바이러스로 보고, 지난 10년 동안 3,000개의 교회당을 불태웠다고 한다.

3. 불안한 연방국가

1. 인도차이나의 불안한 정치와 사회

인도차이나의 불안한 정치와 사회가 도리어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맥가브란 교수가 말한 이론과는 정반대다. 맥가브란은 정치와 사회상황이 불안하고 혁명적 상황이 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즉 복음의 수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80년대 후반 동구권에서 일어난 혁명은 기독교를 부흥시켰다. 한국은 60년대 사회, 정치 혼란 중에서 기독교가 성장했다. 60년대 지식인들과 청년들은 불교나 유교나 다른 전통문화에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
 인도차이나 국가들도 정치 사회 경제가 불안하다. 왕을 신격화시켰던 소승불교 국가들에서는 과거 왕이 절대 권력자였다. 왕은 전 우주의 왕이고 신이었다. 왕의 취임식은 "신-왕"(devajarga)의 선포였다. 캄보디아 전문가 찬들리에 의하면 캄보디아 백성들은 한 번도 주인 노릇을 한 적이 없고 이웃 "악어"(태국)와 "호랑이"(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다인종, 다언어, 다종교 국가다. 완전한 연방국가는 민족국가(nation-state)이다. 인종과 종교가 평등한 입장에서 연방국가가 될 때 정치적 안정을 가지는 정치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특정 종교나 특정인종 중심의 연방국가는 결코 평화로운 연방국가가 될 수 없다. 연방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한다. 동남아는 서구로부터 경제나 문화는 배우지만 정치체도는 배우지 않는다.
 한 일본인 학자는 동남아시아가 연방정부 세우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동남아는 민족국가를 외치면서도 정교분리를 하지 않고 자기 종교와 인종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연방제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인종들도 자기 종교와 인종의 정체성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동남아의 정치 현실을 바로 지적하였다.
 미얀마, 베트남, 태국은 소수종족 문제가 심각하다. 미얀마에서 미얀마 족에게 전도하면 기독교는 카렌족, 카친족, 친족, 친족 종교 신자이면서 미얀마어를 거부하고 영어와 카렌어만 사용한다. 3백만 인구 중 5만 명이 총을 든 가장 강력한 저항 종족이다. 심지어 해방신학이 이들 침례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드슨교회 버마인 당회장이 아쉬워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

LIGHT

HIGHERCALLINGI4

2014 미주 청년학생 Conference

다음세대가 **빛**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나야합니다

www.gohighercalling.com
 Dec. 21-24 2014 / San Diego
 Early Bird \$175 by Nov 17, \$195 by Dec 8, \$245 by Dec 21

SPECIAL GUEST SPEAKERS
 JIM-BOB PARK - Senior Pastor, OMC
 EUGENE CHO - Lead Pastor, Quest Church
 GREG STIER - Dare 2 Share Ministries
 DONG WHAN KIM - National Director, KCCC and MANY MORE!

DECEMBER 21-24, 2014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500 Hotel Circle North, San Diego, CA 92108

Phil Wickham Concert

HIGHER CALLING MAIN OFFICE :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Phone : 213.389.5222 | Email : LAoffice@highercalling.org